

제2573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오늘부터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6

기아, 내일 '애플카 협력' 입 여나 12

상장사 10곳 중 6곳 작년 영업이익 늘었다

276개 기업 실적 분석

반도체·게임 등 IT 34% 차지
식음료, 바이오·제약 뒤이어
“올 영업이익 완만하게 상향 조정”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276곳 중 60%가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로부터 증권사 3곳 이상이 내놓은 상장사 276개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165곳(59.7%)에 달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중 반도체·플랫폼·게임 등 IT 관련 기업이 56곳(34%)이었고, 그다음 식음료(11곳)와 바이오·제약(6곳)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23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 영업이익은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9662억 원, 9659억 원을 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뚜렷해 중장기적 성장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가격은 수요 확대에 기반한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올해 중 2018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 사이클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22년까지 사이클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3N(넥스·넷마블·엔씨소프트)”으로 불리는 국내 3대 게임사들이 모두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황현준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9%, 55%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빅히트와 엔씨소프트의 추가 상승 및 카카오뱅크 기업 가치 상승으로 동사 보유 지분의 가치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기업 영업이익·매출 성장률

(단위: %) ※전년 대비 기준

기업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
반도체 전자		
SK하이닉스	84.3	18.2
LG전자	31	1.5
삼성전자	29.6	2.8
플랫폼 게임		
네이버	5.2	21.8
엔씨소프트	40.9	74.3
자동차 배터리		
LG화학	162.7	5
삼성SDI	63.3	15
기아	2.8	1.8
정유		
SK이노베이션	적자 전환	-34.9
여행		
호텔신라	적자 전환	-44.2
뷰티		
아모레퍼시픽	-69.8	-21.5

반면 정유·여행 등의 실적은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령으로 자동차·항공 등 수송이 멈춰서면서 매출이 급감한 데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정제마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에도 전 세계적 ‘탄소중립’ 트렌드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찮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과 ‘어닝 쇼크’ 기업을 구분해 들여다볼 것을 조언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정보기술(IT)·화학 등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현재 주가가 먼 미래의 이익까지 끌어올 상태라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된 업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상장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기초 체력을 키워 실적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남갈남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영업이익 전망치는 완만하게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의료, 소재, IT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이른 성묘...추모관 긴 줄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11~14일)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영락공원과 망월묘지공원 등 국·시립묘지를 임시 폐쇄한다. 임시 폐쇄 전 성묘를 위해 7일 시민들이 광주 북구 영락공원 소재 추모관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인허가 지연에 의무휴업까지...규제에 우는 유통업

상암 롯데몰, 서울시 허가만 8년

스페셜 리포트

1년 걸릴 복합쇼핑몰 심의가 8년 동안 묶였다. 통상 복합쇼핑몰은 지자체의 심의 과정을 1년으로 잡고, 건설 일정을 2~3년으로 예상한다. 강산이 바뀔 정도로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고, 심의 과정에서 쇼핑 시설 비종까지 줄어들며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5면

지난달 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가 심의를 가결한 상암 롯데몰 얘기다. 2013년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쇼핑몰로 상암동 부지 2만644㎡를 매입한 지 8년 만이다. 인근 전통 시장의 반대가 나오자 서울시가 망원시장 편을 들어주며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감사원까지 나서 롯데의 손을 들어주고 서야 겨우 승락을 받았다. 연내 착공한다고 해도 2025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부지를 매입한 8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 유통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점포 수를 늘리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소비패턴의 변화로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가 급성장한 데다 때마침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넘어야 할 산이 더 생겼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까지 논의되

연내 착공해도 2025년에야 오픈 이커머스 성장에 '점포 다이어트' 유통환경 변화 계획 수정 불가피

면서 갑날은 전통 유통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공은 롯데로 넘어왔지만, 달라진 유통 환경에 롯데의 선택은 미지수다.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롯데쇼핑은 작년 롯데마트를 필두로 슈퍼, 립스, 백화점까지 총 114곳을 폐점시키며 점포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판매 시설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돼 이해득실도 따져야 한다. 당초 롯데는 서복권 최대 쇼핑단지 목표로 전체 부지의 80%를 쇼핑 시설로 꾸미려고 했으나, 전통시장과의 합의 과정에서 30%대로 줄이고 오피스텔 등으로 채워 넣기로 한 상태다.

갈수록 강화되는 유통업 규제도 변수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을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매출 타격은 당연하다. 전망에 맞춰 설계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정지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창원 스타필드도 사정이 비슷하다. 신세계는 2016년 창원시 상업용지 3만4000㎡ 규모를 매입해 스타필드를 짓기로 했지만, 3년간 주변 전통 시장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시민들의 유치 운동에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까지 조건부로 가결됐지만 진전이 없다. 신세계가 아직 건축 계획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구 숙명여대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쇼핑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며 즐기러 가는 곳이기도 하다”면서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복합몰에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당시의 오프라인 유통 환경과 현재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반도체 대란’ 소산업 확산

스마트폰·PC·게임 콘솔 등 충격
글로벌 완성차 매출 68조 타격 예상

글로벌 반도체의 공급 대란 충격이 자동차 업계를 넘어 스마트폰, PC, 게임콘솔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은 최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 차기 최고경영자(CEO)에 내정된 크리스티아노 아몬 사장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반적”이라면서 “이로 인해 스마트폰용 칩 역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컴퓨터와 자동차, 기타 인터넷 연결 기기 등 반도체 수요가 폭등하고 있지만, 공급은 아시아에 있는 소수 공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트래티지에널리틱스의 닐 모스톤 애널리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태블릿·노트북·전기차와의 치열한 경쟁 등은 스마트폰 부품 공급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는 칩셋과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폰 핵심 부품 가격이 최근 3~6개월 사이에 무려 15%나 올랐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자동차 업계다. 미국 포드, 독일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와 혼다 등 주요 업체들은 감산, 공장 가동 중단 등 생산조정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약 610억 달러(약 68조5335억 원)에 이르는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전자산업이 자동차 업계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동...한동훈 일선 복귀 불발

박범계, 휴일 전격 검 간부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에게 주요 보직을 맡기는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야당은 “추미에 2기가 시작됐다”며 비난했다. ▶관련기사 8면

법무부는 9일자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손꼽힌 심재철(27기) 검찰총장은 사실상 영전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수평 이동한다.

이정수(26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

조정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4명 외에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없었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일선 복귀는 불발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쟁을 통해 “정권 말기의 권력 수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사령부에 총성과 홍위병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며 “정권 옹위부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완수를 기대했다. 김종용 기자 deep@

귀성·차례 간소화 바람 ‘밭길 끝길’ 전통시장



설 연휴 전 마지막 주말인 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이 한산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명절 앞둔 주말이면 밭 디딜 틈 없이 시장이 꽉 차야 하는데, 귀성도 차례도 없는 ‘비대면’ 명절이 아쉽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바짝 다가왔다. 설날을 앞두고 찾은 전통시장은 명절 전 제수용품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임에도 비교적 한산했다.

동태전을 뒤집고, 떡국용 떡을 포장하면서도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상인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절 분위기가 좀처럼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서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조경선(54) 씨는 “명절 전 주말이면 원래 밭 디딜 틈 없이 손님이 많아야 한다”며 “지난해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 가격도 3분의 1가량 오르면서 어려운 명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는 “통상 명절 전 주말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과일을 사 가는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고향에 가는 사람이 없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집도 많다”고 걱정했다.

암사종합시장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전모(29) 씨도 “명절을 앞뒀다고 딱히 매출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과일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시장을 찾는 사람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로 사과나 배가 아닌 딸기가 매출 1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유지 여파 명절 차례상 준비 마지막 주말에도 한산 작년 과일 작황 안 좋아 가격 30% 올라

전통시장을 찾은 사람들도 대부분 집에서 명절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송모(71) 씨는 대구에 사는 언니와 ‘비대면’으로 설날 아침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기 시작한 송 씨는 “기술이 좋아져서 서로 고생도 안 하고 좋지 않나”라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직접 얼굴 맞대고 할 얘기가 많은데...”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비대면 명절을 타개하기 위해 ‘비대면’ 장비에 나선 시장도 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은 2019년부터 네이버와 손잡고 ‘전통시장 장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상인들이 제품을 물류센터에 모으고, 이를 배달기사들이 집 앞까지 배송해 준다.

암사시장에서는 많은 상인이 바쁘게 비대면 물류 센터를 오가고 있었다. 암사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주 씨는 비대면 장비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김 씨는 “매장 매출은 많이 줄었지만, 비대면 주문이 늘어나면서 매출을 많이 잡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선물세트 매출 ‘사상 최대’ ‘꽃길 걷는’ 백화점



7일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에서 시민들이 설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0만원대 한우 등 프리미엄 제품 선호↑ 온라인 주문 증가에 매출 신장률 ‘경중’ 농수산물 선물가격 상한선 상향도 호재

백화점이 설 선물세트 특수에 웃음 짓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가의 침체 속에서 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초 신년세일 등 대목을 놓치며 침체했던 업계 분위기가 설 특수를 계기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설이 예상되면서 고향 방문을 대신해 프리미엄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이 상향 조정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7일 “아직까지 명절 선물세트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려는 고객이 많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올해 설을 앞둔 오프라인 점포 분위기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비대면 설로 인한 온라인 주문까지 늘어 매출 신장률이 평년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약 판매를 시작한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세트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51.3% 늘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설을 맞아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10만~20만 원대의 선물세트를 찾는 수요가 많아 10만 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이 약 2배 올랐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설 인사를 선물로 대신하는 고객이 늘 것을 예상하고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30% 늘린 점이 적중했다는 평가다. 55만 원 짜리 1+ 최상급 한우인 ‘명품한우 다복’은 쓰임새 많은 등심로스, 양지국거리, 정육불고기 부위로 구성된 지난해보다 매출이 39% 늘었고, 명절 대표 선물세트인 영광굴비 ‘수험 영광 참굴비 행복’ (30만 원)도 매출이 78% 늘었다.

현대백화점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48.3% 증가했다.

특히 한우의 경우 2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프리미엄급 선물이 인기를 끌었다. △현대 특선한우 송세트(29만 원) △현대 명품한우 수세트(100만 원) △현대 화식한우 난세트(56만 원) 등 20만 원이 넘는 한우 선물세트가 판매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이달 6일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정유와 축산(39%), 청과(51%), 수산(43%), 주류(45%) 매출이 전년 대비 골고루 늘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선물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졌어도, 변치 않는 감동을 전합니다.

최상의 품질만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매일 변함 없이 바이어가 직접 현장에서 상품을 선별하고 매입합니다. 현대식품관의 오랜 전통과 노하우로 감동을 선물하세요.

기업 고객 특별 혜택

대량 구매시 추가 할인
현대백화점상품권 등 시간 내 배송



자세히 알아보기



THE HYUNDAI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H.Point 앱 설치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mall | 현대백화점면세점 | 한성 | 더한성닷컴 | H패션몰 | 현대리버트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더현대닷컴 구매 혜택 1.25 - 2.11

최대 15% 할인쿠폰 + 10% 적립 + 카드사 즉시할인 5% / 전화번호, 카톡ID만으로 더 간편한 ‘선물하기’ 서비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A+'... 호텔신라 적자전환

반도체 vs 정유·여행 '히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산업별 희비가 갈렸다. 언택트 바람을 탄 반도체와 게임 관련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반면 정유·여행 업계는 처참한 성적을 보였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조 능력의 전통적 강자인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수혜로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은 236조8100억 원, 영업이익은 36조 원을 기록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9조47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9조31461억 원에는 밑돌았지만, 전년 동기(189억 원) 대비 증가폭을 키웠다.

이 같은 실적 선방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72조8600억 원,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18조8100억 원을 기록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대대적 M&A(인수합병)와 시설 투자에 공격적 투자를 예고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 5조 126억 원, 매출액 31조9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4.3%와 18.2% 증가했다. 2018년 이후 2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5조 원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9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8.3%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9512억 원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측은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달러화 약세에도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진 모바일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 회복에 선방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집콕 효과' LG전자 최대 매출

정유·여행·화장품 업종 '떡구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반등 기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뚜렷해 중장기적 성장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가격은 수요 확대에 기반한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매년 '상고하저'의 실적을 보였던 LG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콕'과 '보복 수요'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해 장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다. LG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 195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1% 늘었고, 매출은 전년보다 1.5% 오른 63조2620억 원이었다.

LG전자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은 주력인 생활가전과 TV 부문 덕분이다. 특히 의류관리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프리미엄 신가전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생활가전(H&A)에서만 지난해 매출 22조2691억 원, 영업이익 2조3526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간 영업이익률(10.6%)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LG화학은 처음으로 연매출 30조 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2조3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1%가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6736억 원으로 시장전망치(7269억 원)에는 못 미쳤지만, 전년 동기

구분	기업명	2019년 4분기 영업이익(억 원)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억 원)	전년 동기비 (%)	실적 추정치 (억 원)	추정치 과리율 (%)
1	삼성전자	71,603	90,470	26.3	93,461	-3.2
2	현대차	11,644	16,410	40.9	17,127	-4.2
3	기아차	5,905	12,816	117	9,915	29.3
4	SK하이닉스	2,360	9,659	309.2	9,075	6.4
5	KB금융	7,731	7,699	-0.4	8,640	-10.9
6	POSCO	5,576	8,633	54.8	8,562	0.8
7	LG화학	189	6,736	3463.5	7,269	-7.3
8	현대모비스	6,344	7,023	10.7	6,673	5.3
9	LG전자	1,018	6,502	538.7	6,263	3.8
10	LG이노텍	2,093	3,423	63.6	3,333	2.7

(189억 원) 대비 실적 증가폭이 컸다. LG 생활건강은 지난해 7조8445억 원의 매출과 1조22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16년 연속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광уго 대표 취입 이후 성장과 혁신 그리고 계열 분리를 통한 핵심 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등 경영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LG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기업은 단연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로 지난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팔자' 행렬을 이어온 외국인인 유독 게임주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외국인이 올해 순매수한 넷마블 주식만 1조21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6거래일 동안 1195억 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황현준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의 올해 매

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9%, 55%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유와 여행 업계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실적을 내놓았다. 국내 정유업계 1위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2조568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에스오일도 1조877억 원의 영업손실액을 내 사상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까지 모두 합한 국내 정유 4사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는 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항공·여행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다. 호텔신라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이 1853억 원을 기록, 적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모레퍼시픽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92억 원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1조15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줄었다.

다만 이들 기업에 대한 매수 의견은 유지되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해외여행 재개 시점이 호텔신라 주가의 반등 시점과 강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하늬 기자 honey@

"체력 탄탄... 공매도 재개 영향 적을 것"

올해 성적 전망은

의료·소재·IT 매출 증가 기대

올해 국내 상장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기초 체력을 키워 실적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매도 세력이 '표적'으로 삼기에는 매력 떨어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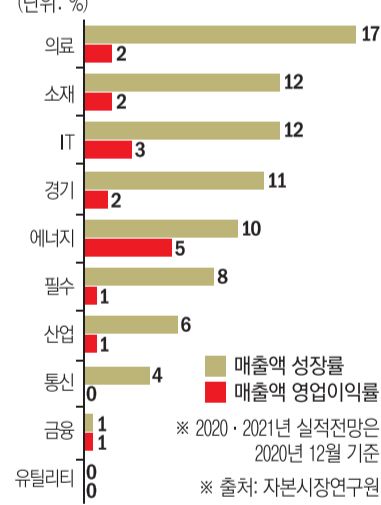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상장사 190곳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80조57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예상치인 영업이익 126조5636억 원과 비교해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급락했지만 이후 반등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액 8.8%, 영업이익률 2.1%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영업이익 전망치는 완만하게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며 올해 의료, 소재, IT 섹터의 매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등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공매도를 뜻한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코로나19 수혜주인 IT·헬스케어·배달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나섰다.

그러나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는 우

2020년 대비 2021년 실적전망



량 기업에는 공매도 세력이 접근하더라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실장은 최근 뜨거운 이슈인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해제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외 사례에서 나타났다"면서도 "시장 충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교한 시장 안정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예전과 달리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고 주로 대형주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우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동안의 주가 급등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이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 기업이익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라며 "(공매도 재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LS ELECTRIC

우리 동네 에너지 특공대!

"전기를 먹고 달리는 돼지코 자동차, 햇님 바라기 태양광까지 우리 집을 더 똑똑하게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대요"

LS ELECTRIC은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으로 에너지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지〉

“공공후보지 선정 순간 시장 죽을 것” 거래 절벽 우려

차가운 시장 반응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 부담금·실거주 의무 면제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익 환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지역과 단지에선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후암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얘기를 꺼내자 연성을 높였다. 그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순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시장 자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투기 방지책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정부는 4일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신설,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선 지난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이들 사업과 비교하면 공기업 권한이 더 강력하다. 아파트 사업·분양 계획 수립 등 아파트 이름 명명권을 제외한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권을 공기업이 쥐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서울역과 인접한 데다 노후 주택이 많은 후암1구역은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사업지 1순위로 꼽힌다. 그럼에도 후암1구역 추진위가 우려하는 건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꺼내든 투기 억제책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4일) 이후 매매되는 부동산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정의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고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아파트 브랜드 선정권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공공기관이 갖는다.

이익 보장 방안

기존 가구 수보다 확대 보장(재개발 1.3배·재건축 1.5배), 민간 사업 대비 초과수익률 보장(10~30%포인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장점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초과 이익 보장 범위 외 개발 수익은 모두 공공주택 건설·SOC 확충·영세 토지주 보호 등 공공사업으로 환수

투기 방지 방안

2월 4일 이후 매매된 부동산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우선 입주권 지급하지 않고 현금 청산.

단점

투기 수요 억제

시장 불확실성 기증, 거래 위축

대책 발표後 취득한 신규주택 공공개발 땐 현금청산 대상 “후암 1구역 등 실익 없고 용적률만 높이는 쪽방촌 개발” 지적 재건축 부담금·실거주 의무 면제에 일부지역 기대감 커

대해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수요자라도 부동산 구매가 늦으면 감정평가액만 받고 집을 공공 시행자에게 내줘야 하는 것이다. 후암1구역 추진위 측은 “공공 시행 개발지에 주택을 구입하면 현금청산해버린다고 하는데 이러면 누가 거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우려는 재건축 단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R공인중개사 무소 관계자는 “강남엔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많다”며 “이렇게 매수 수요를 완전히 막아놓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손발을 묶어놓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내놔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에 가구 수 확대(기존 가구 수 대비 1.3~1.5배 이상)·추가 수익률(민간사업 대비 10~30%포인트 추가 수익) 보장 등이다. 재건축 규제 상정처럼 여겨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2년 실거

주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토지주 수익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공급·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사업에 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강남구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추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공공주택 짓는 데 쓰겠다는 게 정부 얘기 아니냐”며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내놓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암동 L공인 관계자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 주도로 재개발하다 용적률만 높여 쪽방촌을 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대체로 반대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반기는 흐름도 감지된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위에선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활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주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공재건축 심층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고민이 적지 않았다.

그간 집값 상승이나 개발 바람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S공인 관계자는 “이곳은 그동안 개발이 너무 안돼 주거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며 “공공 주도 개발을 이곳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제법 호응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KBS 방송에 출연해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예외주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내년까지 2200가구...머나먼 ‘전세 안정’

5년간 4.3만가구 공급...전체 43% 오피스·고시원 등 1인 가구 집중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지속 예상

정부가 4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내년까지 서울에서 나올 단기 공급 물량은 22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불난 매매·전세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단기 공급 방안으로 꺼내든 물량은 모두 10만1000가구다. 서울에서 나올 물량은 모두 4만3600가구로 무려 43%를 차지한다.

단기 공급 주택 확보는 크게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만810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비주택(상가·오피스 등)→주택으로 추진해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했다면, 이번 대책에선 비주택→주택(기숙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층별 리모델링을 가능케 했다. 또 그동안 준공된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앞으로 공사 중인 숙박시설도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노후화된 비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단기 공급 주택인 만큼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이고, 물량은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만큼 집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2만5500가구가 나온다.

그러나 연도별 공급 분포를 살펴보면, 올해와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단기 공급 주택은 각각 900가구, 1300가구로 총 2200가구에 불과하다.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2023년부터다. 이 때부터 2025

서울 단기공급 물량 (단위: 가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주택 리모델링	900	1300	5300	5300	5300
신축 매입약정	0	0	8500	8500	8500
합계	900	1300	1만3800	1만3800	1만3800

총 4만3600가구

*출처: 국토교통부

년까지 매해 1만3800가구씩, 3년간 무려 4만1400가구가 쏟아진다.

입주 물량 급감으로 서울지역 매매값과 전셋값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시장에 유의미한 물량 공세는 2년 후어나 가능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200가구가 모두 비주택이거나 준주택 리모델링 물량이라는 점이다. 오피스와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개조해 공급하는 1인 가구용이 전부다. 3~4인이 살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이 포함되는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없다. 현재의 전세난이 3~4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인 셈이다.

물론 정부가 작년 11·19 전세대책 발표 당시 서울에서 내년까지 3만 가구가 넘는 전세 주택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 이 역시도 민간과의 협의의 난관 등으로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쇼크 수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민간의 의지에 따라 총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단기 공급 물량도 ‘목표치’여서 매매·전세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용적률 500%도 답답한데...700%까지 높이겠다고?

고밀개발 ‘닭장 아파트’ 양산 우려

정부의 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에 ‘닭장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적률 500%만 적용돼도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놔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물량은 △역세권 12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1만2000가구

당장 입주할 앞둔 ‘용적률 500% 아파트’를 보면 이같은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입주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원 12억 신축 아파트 닭장 논란’이란 글로 화제가 됐던 단지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499%, 견폐율 23%가 적용돼 고밀도로 지어졌다. 이렇다 보니 좁은 공간에 일조·채광·통풍 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 입주 전부터 나오고 있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위압적인 ‘닭장’ 아파트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불만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인근 ‘우방 센트럴파크’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규모로 지어졌으나 용적률이 229%에 불과해 공간이 여유가 있는 반면, 화서역파크 푸르지오는 뻥뻥한 공간에 입주 후 주민들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난개발로 일조·채광 등 주거환경 질 저하 국토부 “역세권에도 필요한 곳에만 상향”

△저층주거지 6만1000가구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7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높이 기준 등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지상층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으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층수도 높아지게 된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면 주택 공급 숫자는 늘릴 수 있으나 일조량과 조망권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거 환경의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용적률 500% 적용 단지도 ‘닭장 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마당에 용적률 700% 단지가 역세권에 세워질 경우 도시 경관을 망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총량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난개발과 그에 따른 도심 경관 및 주거 환경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용적률 상향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세권 주변이라고 무조건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용적률 상향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스타필드 소상공인 60% 넘는데 누굴 위한 '월2회 휴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란

6일 점심 무렵 롯데몰 수지점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사장님을 찾자 주방에서 양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제가 점주입니다"라며 김 모(63) 씨가 나왔다. 최근 종업원을 줄여 카운터도 보고 주방 일도 본다고 했다. 김 씨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 직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며 "임차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주말 장사까지 못하게 하면 (쇼핑몰에) 들어올 점주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객이 예전 같지 않아 가뜩이나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복합쇼핑몰 입점 자영업자들은 정치권이 복합쇼핑몰 주2회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앞다투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찾은 롯데몰 수지점에서 주일리 매장을 운영하는 나 모(35) 씨는 "직장인들이 보통 주말에 쉬니, 주말에 판매 못하면 더 힘들어질 것은 뻔하다"고 힘없이 말했다.

스타필드하남에서 한 남성복 매장을 운영 중인 강 모(46)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매출을 다 합한 것보다 주말 이틀간 매출이 2배 정도 많은데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하면 직원을 당장 줄여야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규제해야 한다면 주말이 아닌 주중 정기휴무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이 이번 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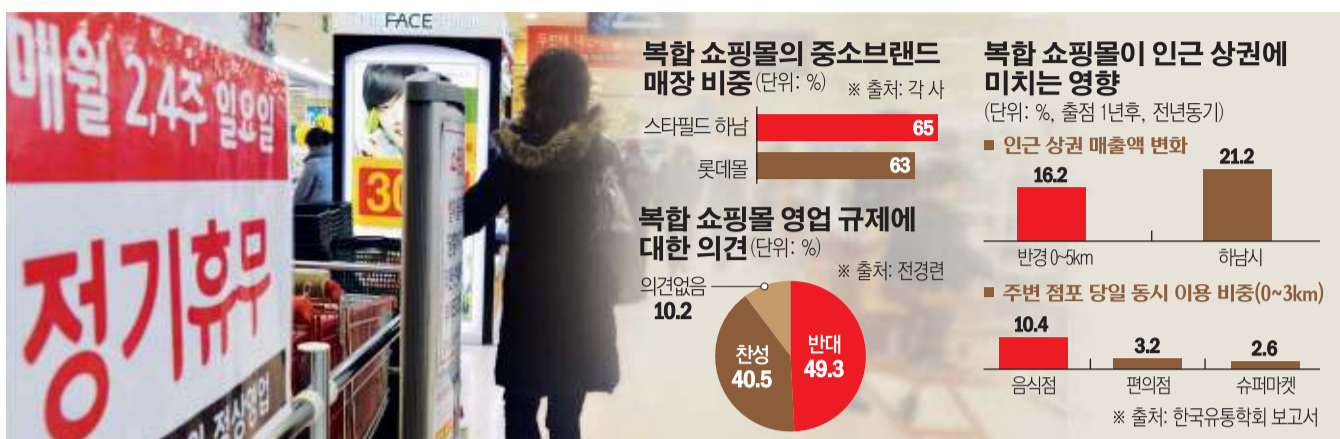
국회 '유통법 개정안' 규제 확대 추진 코로나에 인건비마저 줄인 입점 점주 "법 통과면 매출 반토막... 폐업해야" 전문가 "주변 상권마저 고사 우려"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는 법안 중 하나다.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지난 2일 상생을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특성을 무시한 정치적 법안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직접 매입해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 점포 대부분은 소상공인인 자영업자가 임대하기 때문이다. 스타필드하남점은 65%, 롯데몰은 63%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으며, 롯데몰 수지점의 경우 소상공인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쇼핑몰이 쉬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입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복합쇼핑몰의 영업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쇼핑몰의 이용자인 소비자들 역시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많이 위치한 수도권 응답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반



대 비율은 53.6%로 올라간다.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키즈 카페가 있어 아이 둘을 데리고 한달에 한번꼴로 롯데몰 은평점에 간다"며 "주차도 편리해 차를 타고 주변 상점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주말에 영업을 안하면 당장 불편해질 것"이라고 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영화관, 식당 등 문화·외식시설이 잘 돼 있어 쇼핑이 아닌 데이트 목적으로 쇼핑몰을 찾는다"며 "주말 규제가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복합쇼핑몰은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집객 효과로 지역민들에게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유통학회의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오픈한 스타필드 하남점은 출점 1년 후 반경 5km 내 주변 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3% 상승했고, 하남시 전체는 21.16% 치솟았다.

실제 스타필드 하남점을 방문한 고객이 인근 3km 이내 음식점을 당일 이용하는 비중은 10.4%였으며,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중도 각각 3.2%와 2.6%로 나

타났다. 업계는 복합쇼핑몰 1개가 특정 지역에 입점할 경우 대략 5000여 명의 상시 고용이 이뤄지고 1만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일자리 감소는 물론 주변 상권마저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정치 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jooh@안경무 기자 noglasses@

사방에서 조여오는 '유통규제'

정치권서 논의 중인 유통규제 법안은 무엇?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로켓정산법)**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대금 지급해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
"규제 대상을 기존 오프라인에서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 배송하는 이커머스로 늘려야"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자신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 강제해야"

"반쯤하면 0원인데 정산부터 하라니" 이커머스 업계도 '불통 규제'에 분통

국회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업계 규제에 이어 '새벽배송 제한'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11번가와 네이버 등이 정산에 1~2일을 소요하는 반면 쿠팡 등 일부 이커머스의 경우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이 소요돼 유통성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쇼핑몰의 갑질로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은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계는 개정안 추진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이커머스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지 않으면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구매 확정에 앞서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정산을 끝낸 이후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 이는 환불과 반품 등 과정에서 경영 편의성을 높여주는 조치"라며 "현행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지급 방식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규제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기존 대형마트에 더해 쿠팡과 마켓컬리 등 물류창고를 보유한 이커머스를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입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해 업계와 정부 부처 등 관계자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온라인 유통규제에 대한 반발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포착된다. 규제 도입 시 새벽배송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바이탈뷰티 명작수
홍삼 앰플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與 ‘선별+전국민 25兆 추경’ 기재부 반대에도 밀어붙여

與, 설 전 당정협의 후 내달 지급
기재부 “재정건전성 살펴봐야”
10조~15조 맞춤형 입장 고수
결국 문 대통령 의중에 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에 대응키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이르다면 다음 주에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 시기와 규모를 두고 의견차가 드러나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설 연휴 전이라도 당정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경 내용과 논의 일정을 정하면 조만간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선별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총 소요재정 규모는 25조 원 안팎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9조3000억 원가량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 규모였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당장 설 연휴 전후에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를 시작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지급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한 피해계층만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10조~15조원 이내 규모의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 우려다. 이미 목적예비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5조 원 정도가 쓰여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에는 약 2조 원 정도만 끌어올 수 있다. 나머지는 적자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기 또한 내달 지급 개시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달리 논의를 내달 시작하지는 입장이다. 그 이유에는 또 3차 재난지원금이 등장한다. 아직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치지도 않아 새로운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과 기재부의 의견차가 뚜렷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의지가 강하고, 기재부는 여당 압박에 입장이 꺾여 홍 부총리가 사의까지 표했던 기억이 선명해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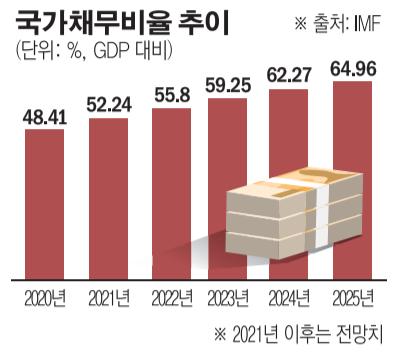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휴일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토록 논의에 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당이 분명하게 주도할 것이고, 기재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과거처럼 당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의지에도 당정협의를 불협화음이 세계 된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맡겨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uknow@

국가채무비율 4년 뒤 65% 예상 부채 급증시 신용등급 하락 우려

증가 속도 선진국 중 9위
“한은, 국고채 무이자 매입”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에서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8.41%로 올라서고, 올해 50%, 2024년 60%를 넘어서 2025년에는 64.96%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확대로 2019~2021년 10.31P 오른다.

2019~2021년 37개 선진국 중 24위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은 2015~2025년으로 확장할 경우 9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의 신용도에도 부정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인 AA를, 피치(Fitch)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A-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는 1986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하향된 적이 없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다.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

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악화로 신용등급(피치)이 하향 조정됐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국고채를 무이자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 부담을 덜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안으로 꼽힌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민생이 안정돼야 재정도 안정된다. 가계가 붕괴되면 재정도 붕괴된다”며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한은법에 (이미) 있다.”고 말했다. 한은법 제75조는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기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규모로 85조 원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론적으로 무이자로 매입할 수 있어 정부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국채 인수를 방지해 대규모 외인 자금 유출에 따른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세종=김지영 기자 jye@



휘발유 가격 11주 연속 오름세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1.5원 오른 1당 1452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연합뉴스

수도권 2.5단계 유지에 뿔난 자영업자 ‘개점시위’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영업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유지에 반발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7일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열되 손님은 받지 않는 ‘개점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돼, 방역당국으로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완화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7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방역당국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이날부터 자발적 개점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업종 간의 형평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실내체육시설, 스터디카페 등 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도 연대하기로 해 자칫 집단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던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2.5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마용업, 백화점·대형마트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제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좌석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종교활동	
영화관	
공연장	

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10시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비수도권의 최근 1주간(1월 31일~2월 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97.0명으로 직전 1주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수도권에선 257.6명으로 14.0명 증가했다. 여전히 2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12시(정오) 기준으로 서울 서대문구 체육시설(총 16명), 도봉구 교회(총 11명)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0시(전국집계) 기준으로 이날 326명의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265명(81.3%)이 수도권 확진자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는 현 방역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퀵서비스, 하루 106km 달리고 월 216만원 벌어

운전자 평균 연령 58세
산재보험 가입률 5.2%

지난해 퀵서비스 운전자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면서 15건의 화물을 날랐고, 100km 이상을 달렸다. 월평균 순수입은 21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연령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으로 10명 중 1명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퀵서비스 운전자 대상 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먼저 퀵서비스 운전자는 하루 평균 15.1건의 화물을 싣고, 106km가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시간과 운행 외 시간을 포함한 일평균 업무시간은 9.8시간이었다.

월평균 총 운송 수입(총매출액)은 평균 339만 원이었지만, 알선 수수료(58만 8000원)와 유류비(16만 8000원), 지입료(7만 6000원), 유지 수리비(5만 7000원)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216만 원 수준이었다.

퀵서비스 운전자의 나이는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 퀵서비스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57.8세로, 40세 이상 전체의 96.9%를 차지했다. 운전경력 평균은 19.8년, 배운 경력은 평균 13.7년으로, 배수에 사용되는 이륜차의 평균 사용 기간은 9.6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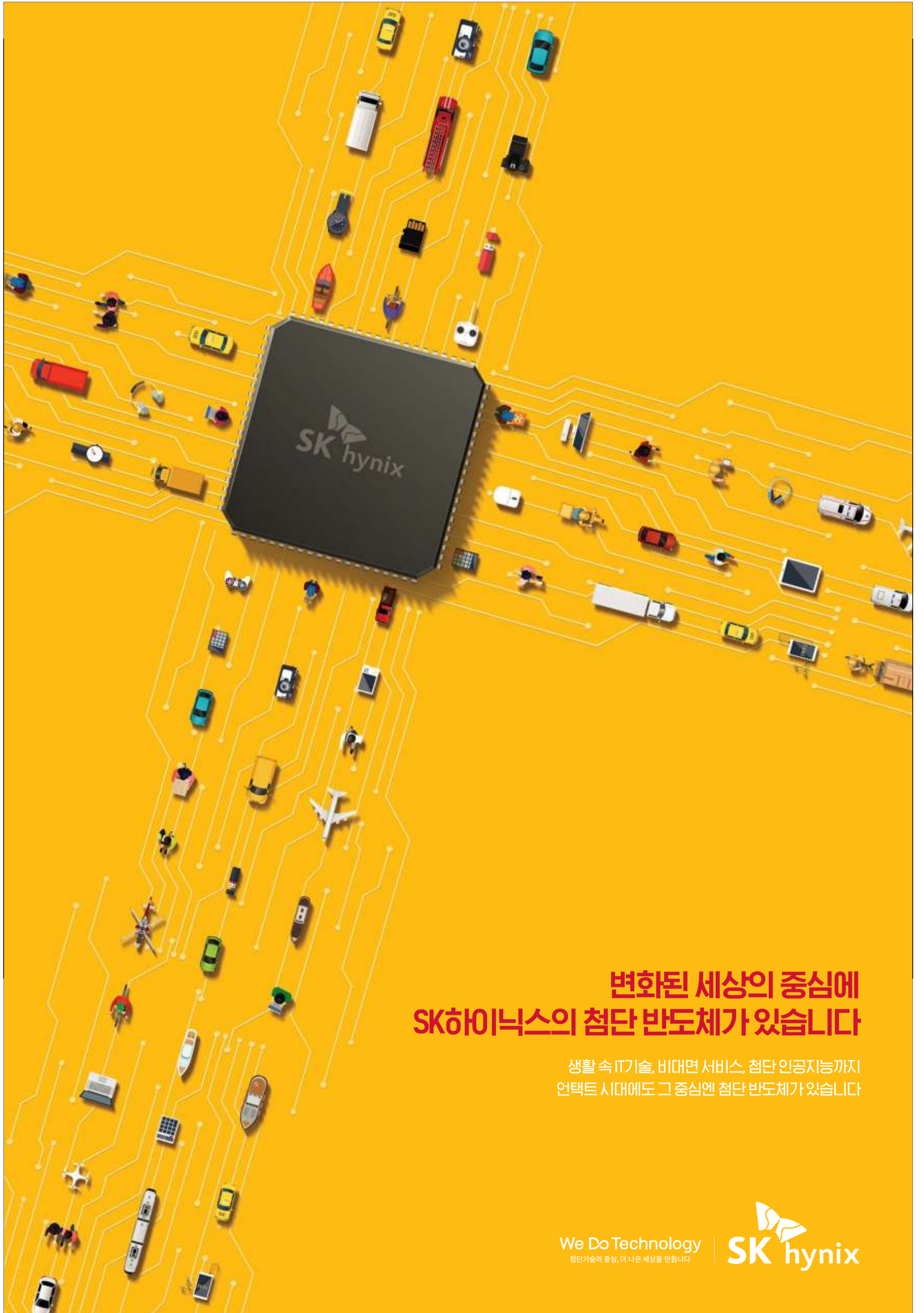
이들 10명 중 1명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운행 시 안전모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58.2%에 불과했다.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건강보험은 가입했으나, 고용보험에는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8.6%, 5.2%였다.

특히 퀵서비스 운전자 중 40.0%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아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의 81.4%는 퀵서비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1%가 표준 운임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연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총장 의견 무시한 검찰 인사... 윤석열 또 배제

박 장관, 윤 총장 두 차례 만나 의견 나눴지만 '요식행위' 그쳐
이성운 유임尹 가족 수사 탄력
법무부-檢 갈등 불거질 가능성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나경원 전 국민의 힘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의 수사 팀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잡음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올해 7월 임기 만료되는 윤 총장의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두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이 대전지검장을 전보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심 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정치권·검사 로비 의혹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

을 맡고 있다.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17명의 검사장 반발 성명에 이 서울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동참하지 않은 3명 중 1명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 남게 됐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이번 인사가 '박법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향후 관계를 가능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결국 요식 행위에 그쳐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 인사를 두고 '윤석열 패싱, 추미애 시즌2'라는 일부 시선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인사를 주말에 기습 발표한 것을 보면 추 전 장관 때처럼 윤 총장이 인사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윤 총장 퇴임 때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중용 기자 deep@

野 "檢인사 '추미애 시즌2' 총장 의견 뭐 하리 들었나"

野 "권력 수사 막을 인사 심어" 與 "정치공세 중단하라" 반박

7일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 등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야당은 "추미애(전 법무장관) 2기가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 인사에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는 평에서 "바뀌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 놔다. 정권이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내 맘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법계 법무장관은 뭐 하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나"라며 비판했다.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은 모두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인사이고, 중앙지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측근 사건' '유평머스 사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 '라임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옹위부의 오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검사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지검장은 빠지면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 유임됐을 것이고 후에 검찰총장을 노리겠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가 걸리게 되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심 지검장은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에 그대로 두고 싶었겠지만 남부지검이 맡은 사건들을 맡길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외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문재인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 만큼 정권을 향한 수사는 이·심 지검장을 통해 덮거나 잡아두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그는 "청와대와 박 장관은 탈원전 관련 등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을 가장 손대고 싶었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박 장관이 타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에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검찰 내부를 계파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소폭 인사에 그친 만큼 향후 폭이 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전지검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백은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수원지검이 맡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이 지검장 등 현 정권에 호의적인 주요 인사들이 걸려 있어 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참다한홍삼

설맞이 특별전

辛丑年

2021.1.22(금) - 2.22(월)

30/50/100/20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20%

3+1

다시, 남자 69,000원	다시, 여자 89,000원	홍삼대환 150,000원
-------------------	-------------------	------------------

5+1

마일드스틱 55,000원	클래식 55,000원	홍삼절편 55,000원	홍삼정스페셜 79,000원
------------------	----------------	-----------------	-------------------

*실결제 3% 적립 *N+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T.1661-0308

www.chamdahan.com

참다한 홍삼은 전국 180개 직/가맹점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 총리 평창평화포럼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강원 평창군의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평창평화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보좌진, 정당 첫 노조 설립 추진

"상시해고 가능, 보완책 필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7일 노조설립 뜻을 밝히며 조만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각 정당 사무처는 노조가 있지만, 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원 직권으로 상시 해고가 가능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당이나 개별의원에 보좌진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면직해고제 등 보완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와 지난해 11월 말 운영위원회에서 노조설립 준비를 해왔다. 다만 아직은 모든 보좌진에 공유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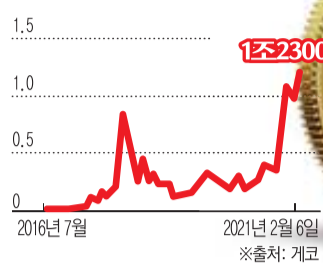
은 상태라 원만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한 국민의힘 보좌진은 통화에서 "대부분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구상단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조 설립 소식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좌진들은 의외로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특히 민주당은 보좌진 중 1명씩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으로 보내는 혁신안 탓에 갈등 중이고, 정의당도 류호정 의원의 전 비서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서 더욱 의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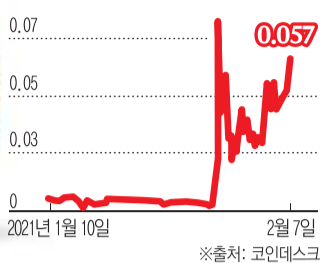
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은 통화에서 "공무원노조법상 6급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 데다 단체협약 대상도 국회의원, 정당인, 임면권을 가진 개별 의원인지 모호해 노조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법을 바꿔야 할 텐데 그 권한이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있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머스크 부채질에 가상화폐 시총 '1.2兆 달러' 돌파

가상화폐 시가총액 추이
(단위 : 조 달러, 현지시간 기준)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 추이
(단위 : 달러, 한국시간 오후 1시 기준)



이더리움, 1700달러 첫 돌파
비트코인도 4만 달러 재탈환
도지코인 한달새 1070% 폭등

새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다시 썼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에 폭등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전날 정오에 4만658달러(약 4567만 원)로, 다시 4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약 4만2000달러에 근접한 것이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랠리를 이끌었다. 그는 1일 오디오 전용 소셜미디어인 클럽하우스에서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트위터 계정의 자기 소개란에 '#비트코인'이라고 적으며 투자자들을 열광케 했다.

가상화폐 집계 사이트 코인게코는 6000여 개 가상화폐 총 시가총액이 한때 1조 23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세계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5일 17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1600달러 선으로 후퇴했지만, 올 들어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8일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CME가 선물 상품을 출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더 증

가할 전망이다. 샤신 파도디아 아본벤처스 파트너는 "더 많은 금융 상품이 생기면 더 많은 참여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는 이더리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던 머스크 CEO는 4일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려 복귀하는 한편 이 가상화폐 가격을 폭등시켰다. 머스크는 로켓이 달까지 발사된 사진을 올리고 '도지'라는 문구를 달았다. 머스크의 트윗 전 도지코인은 개당 3센트 선에서 거래됐지만, 트윗 이후 가격은 5센트를 넘었다. 올해 들어 도지코인은 1070% 넘게 폭등했다.

도지코인은 가상화폐 투자 이상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지코인은 2013년 장난으로 시작된 가상화폐로 실용적 목적이 전혀 없다. 재미있는 표정의 일본 시바견 이미지가 2010년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 개를 로고로 한 가상화폐를 만든 것이다. IBM 출신 빌리 마커스가 장난으로 인터넷에 개발 계획을 올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 잭슨 팔머가 합류하며 탄생했다.

현재 도지코인에서 손을 떼 마커스는 "도지코인이 8센트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은 게임스톱의 주가가 325달러를 기록한 것과 같다"며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과 달리 도지코인은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 개당 1달러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게임스톱의 등장은 투자자들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최혜림 기자 rog@



미얀마, 2007년 이후 최대 시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7일 시위대가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주말 수만 명이 행진하는 등 '2007년 샤프론 혁명'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다. 수도 네피도와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다. 한편 남동부 미야와디 지역에서는 이날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혈 사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양곤/AFP연합뉴스

'빈사 상태' 美 외식업계 '포장 스시' 불티

작년 매출 25% 급감 속 '테이크아웃 활로' 일식 전문점 수 5% 늘어

일본 스시가 미국인 입맛을 사로잡았다. 미국 레스토랑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빈사상태에 빠졌지만, 스시 테이크아웃은 호황이라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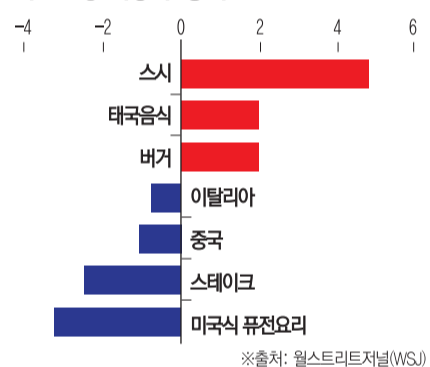
식료품점에서 파는 10달러짜리 롤에서 수백 달러의 포장 식사에 이르기까지 스시 테이크아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지 일식 당들은 스시 배달과 포장으로 새 고객을 끌어 모으면서 전염병을 극복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리뷰 사이트 옐프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스테이크하우스와 이탈리아 레스토랑 수가 줄었지만 스시 전문점 수는 약 5% 증가했다.

한 살리콘밸리 엔지니어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매주 스시를 먹었지만, 팬데믹으로 그럴 수 없었다"며 "다행히 테이크아웃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스시에 대한 높은 수요는 코로나19로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축대밭이 된 가운데 나타났다. 전국레스토랑협회

미국의 2020년 3월 1일 이후 레스토랑 매장 수 증가율 (단위 : %)



(NRA)는 "지난해 미국 레스토랑과 바(Bar) 매출이 6590억 달러(약 740조 원)로, 전년보다 25% 가까이 급감했다"며 "11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바가 임시 휴업했다"고 추산했다. 미국 노동부 통계는 레스토랑과 술집 고용 인원이 약 240만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식당도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미국 여러 도시에서 많은 일식당이 문을 닫았다. 나스닥거래소 상장사인 쿠라시시USA는 지난해 말 동일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급감했다고 밝혔다. 스시 체인 뱀부시와 키피시를 운

영하던 서스테이너블레스토랑홀딩스는 지난해 5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스시 전문점과 고급 일식집은 테이크아웃으로 활로를 찾았다.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톡(Tock)에서 스시는 작년 4분기 가장 많이 검색된 테이크아웃 요리였다.

포틀랜드 소재 투자업체이자 서스테이너블레스토랑 매장 12곳을 인수한 소르티스 홀딩스는 뱀부시 매장 5곳을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다. 소르티스 측은 자사가 인수한 매장 매출이 지난해 4분기에 전년보다 약 3%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욕 고급 일식집 마사(MASA)는 수제 간장을 넣고 일본에서 직수입한 용기로 포장한 800달러 스시 도시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사 측은 "자동차를 렌트해 직접 고객에게 배달한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며 "일부 단골은 매주 스시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식료품점에서 스시는 날개 돌진 듯 팔리고 있다. 닐슨은 "올해 1월 23일까지 4주간 슈퍼마켓에서의 스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2%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식료품점 전체 매출 증가율은 12.5%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소뱅 "스팩 상장으로 7078억원 조달"

두 달 만에 신규 스팩 2개사 설립... 통신·AI 등 투자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상장 열풍에 편승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그룹이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 이 회사가 스팩인 'SVF 인베스트먼트 2'와 'SVF 인베스트먼트 3'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스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록적인 수요를 활용해 최대 6억3000만 달러(약 707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소프트뱅크가 새로운 스팩 신설에 나선 것은 작년 12월에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에도 SEC에 스팩인 'SVF 인베스트먼트'를 세워 최대 5억2500만 달러를 조달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스팩 세 곳 모두 이동통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소프트뱅크의 첫 번째 스팩인 SVF는 비전펀드의 운영·총괄 책임자인 라지브 미스라가 이끌고 있다. 2·3번째 스팩(SVF2·SVF3)은 비전펀드의 관리 파트너인 므니시 바나와 이오니스 피펠리스가 이끈



다. 나브넛 고빌 비전펀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세 곳의 CFO를 담당한다. 비전펀드를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가 스팩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스팩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비상장 기업이 상장 스팩에 인수되면 일반적인 기업공개(IPO)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다. 일명 '백지수표 회사'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미국증시에서 우회 상장 통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상장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블룸버그의 집계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미국 거래소에 스팩 117곳이 상장했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은 총 350억 달러가 넘는다. 변효선 기자 hsbun@

"AZ백신, 남아공 변이에 효과 약해"

경증·중증 발현 못 막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예방 효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제한적인 예방 효과를 보였다. 다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유의미한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의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하는 것으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증·중등증 발현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가 임상시험 참가자 2026명 중 무작위로 이중 맹검 시험을 시행한 결과 남아공발 변이인 '501Y.V2'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심각하게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아직 동료 과학자들의 교차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공식 결과 발표는 8일로 예정되었다. 연구진은 남아공발 변이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 예방 효과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중 입원하거나 사망한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소규모 1·2상 시험 초기자료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대다수 시험 참가자가 젊고 건강한 성인이어서 중증과 입원 예방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참가자의 중위연령은 31세였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올해 가을까지 변이바이러스 대응하는 차세대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옥스퍼드대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 임상 책임자인 앤드루 폴러드 교수는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B.1.1.7'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제약사도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데이터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미국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백신 유전자 배열을 재구성해 임상 시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 결과 자사 백신이 예방 효과가 달했다고 전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자체를 시험한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최혜림 기자 rog@

'연산의 신' 양자컴, 제조업엔 희망·군사안보엔 악몽

'퀀텀혁명' 이끌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AI)이 합쳐지면 전 세계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손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양자컴퓨터의 미래에 대해 이 같이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보스 어젠다' 서밋에서도 "앞으로 10~20년 후에는 양자컴퓨터 기술이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양자컴퓨터 시대' 도래를 예고했다.

◇'슈퍼컴' 능력의 1억배 '양자컴' = 최근 들어 슈퍼컴퓨터 능력보다 1억 배나 빠르다는 양자컴퓨터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뜨겁다.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양자컴퓨터는 이미 산업 곳곳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빅테크 기업은 물론 기존 제조업에서부터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물

슈퍼컴 1만 년 연산, 200초에 풀어 식량·에너지 등 지구촌 난제 해결 제조·유통·신소재 개발 활용 박차 암호체계 무력화...가상화폐 붕괴

론 응용에 나서기 시작했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 만에 해결할 만큼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

◇'퀀텀'에 빠진 폭스바겐·BMW = 자동차 업계는 최근 양자컴퓨터 도입에 적극적이다. 독일 폭스바겐은 캐나다 디웨이브시스템(D-Wave Systems)와 손잡고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웨이브시스템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양자컴퓨터를 상용화한 업체다. 양사는 최단 경로를 소개해주는 기존 서비스를 넘어서 도로에 있는 수많은 차량의 통행 루트를 동시에 파악,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는 양자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시스템뿐 아니라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 최종 공정 중 하나인 도장 작업에도 양자컴퓨터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BMW도 최근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에 발을 들였다. 미국 IT전문매체 ZD넷에 따르면 BMW는 지난달 미국의 허니웰(Honeywell)과 싱가포르 스타트업 엔트로피카랩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 양자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제조와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트랩이온 양자컴퓨터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들이 양자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조, 공정, 유통 단계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 이

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 활용 분야로 기대되는 또 다른 분야는 신소재다. 양자역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원자의 결합이라고 본다. 원자의 결합 방법에 따라 플라스틱이 되거나 유리, 또는 반도체가 된다. 이들이 결합하는 패턴을 양자물리 법칙으로 계산한다면 신소재 개발도 가능하다. 같은 원리로 사람 개개인 증상에 맞는 맞춤형 약물이나 반영구적 수명을 가진 배터리를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등 지구상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꿈의 컴퓨터' 기회이자 위기 될 수도 = 양자컴퓨터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꿈의 컴퓨터'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인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기존 암호 체계가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 국가와 기관이 군사 등의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암호체계가 핵심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양자컴퓨터 등장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양자컴퓨터 업체 ORCA의 리처드 머레이 CEO는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채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기존 가상화폐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터 시대에 맞는 새 암호화 표준을 사용하면 가상화폐 시스템 붕괴를 피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G2 '양자혁명' 패권전쟁

"안보지형 바뀐다"... R&D·인재육성·특허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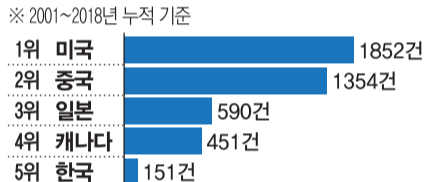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양자 혁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국의 추적이 매섭다. 양자 기술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인 만큼 향후 개발의 정도에 따라 국가 안보, 정보 경쟁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자 혁명의 신호탄을 제일 먼저 쏜 곳은 미국이었다. 구글은 2019년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세계 최초로 '양자 초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구글은 슈퍼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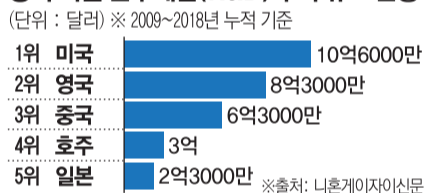
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비트를 통해 200초 만에 해결했다는 내용을 잡지에 실었다.

1년 뒤인 지난해 12월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진도 네이처와 대등한 권위를 가진 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양자 초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일본 '후가쿠'로 6억 년 걸릴 문제를 구글과 마찬가지로 200초 만에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글과 달리 중국의 개발은 양자 초월 입증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

양자컴퓨터 관련 특허 출원 현황



양자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현황



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평가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표준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국은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주요 기업들과 양자 기술 선두를

놓고 경쟁에 돌입했다"고 평했다.

일본 지식재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아스타무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세계 각국의 양자컴퓨터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은 총 80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했다. 이 중 미국이 10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8억3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6억3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고, 호주와 일본이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관련 특허 건수는 미국이 185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354건으로 맹추격 중이다.

양자 혁명을 위한 전 세계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패권 전쟁으로까지 불리는 이유는 양자컴퓨터가 향후 안보 지형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양자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렸다. 당시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은 국가 안보와 정보 경쟁에서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며 "이러한 경쟁이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하고 보안, 산업 역량의 비대칭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은 "양자컴퓨터는 미래 산업이나 경제 개혁에 영향을 미쳐 국력을 좌우하는 힘이 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양자 컴퓨터를 주요 전략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인재 육성이나 응용 부문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우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장구, 열람기, 도매인)

7년 만에 내부통제 감사 받는 수는

감사원, 내달 초 본감사 착수
내·외부 지적 시정조치 등 점검
직원 65% 징계 감경 표창 보유
징계 낮출 수 있어 실효성 논란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예비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입은행 감사는 2014년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정기 감사인 만큼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1월 말 예비 조사를 위해 감사역 2~3명을 수출입은행으로 파견했다. 감사원은 현장조사와 비대면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2월 말까지 예비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대상과 범위, 방식을 결정해 3월 초 본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 감사다. 감사원은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동안 기관 내·외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 등 감사 방식이 달라진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2020년 징계 내용' 문서가 공

개되면서 내부통제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직급과 징계 내용이 상세히 공개됐다. 징계 사례 중에서는 무주탁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 및 합숙소에 살면서 겹투자를 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경우,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부서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등이 징계 대상자로 문서에 언급됐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이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가진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어 징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출입은행 전 직원의 65%(1216명 중 793명)가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G1, G2 직급은 표창 보유 비율이 직급 인원 대비 97~99%에 달한다. 수출입은행 직원은 G1, G2, G3 등 세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 모두 고위직 간부였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점도 드러났다. 실제 채권 공모발행의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할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을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포상 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문서에 언급된 직원들에게 징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질감사에 나가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끝나야 개별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이후에 본감사의 테마와 기간이 정해진다"며 "이달 말에 정확한 감사원의 연간 감사계획이 발표되는데, 수출입은행에 대한 본감사의 형태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우리銀, 라임 부당권유 위반 '소비자보호 노력' 인정 촉각

금감원, CEO 중징계 통보
무역펀드 분쟁 조정 수락 등
손태승 회장 징계 경감 가능성

자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 제안서에서 우량 등급의 사채만 편입하기로 했는데 등급이 없는 사채를 편입한 점이 문제"라며 "부당권유는 형사처벌까지 들어가서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권유 위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소비자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감경받을 가능성도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단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직무 정지나 문책 경고 모두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지만 손 회장에겐 전 행장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은 제재가 통보됐다.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를 보면 우리은행은 면직을, 신한은행은 직무 정지를 각각 통보받았다. 이에 근거해 감독자인 손 회장과 전 행장의 징계 수위도 정해졌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과는 달리 부당권유 위반이 제재를 양정할 때 추가로 고려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9조에서 부당 권유를 금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 제안서에서 우량 등급의 사채만 편입하기로 했는데 등급이 없는 사채를 편입한 점이 문제"라며 "부당권유는 형사처벌까지 들어가서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권유 위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소비자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감경받을 가능성도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단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직무 정지나 문책 경고 모두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지만 손 회장에겐 전 행장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은 제재가 통보됐다.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를 보면 우리은행은 면직을, 신한은행은 직무 정지를 각각 통보받았다. 이에 근거해 감독자인 손 회장과 전 행장의 징계 수위도 정해졌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과는 달리 부당권유 위반이 제재를 양정할 때 추가로 고려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9조에서 부당 권유를 금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자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 제안서에서 우량 등급의 사채만 편입하기로 했는데 등급이 없는 사채를 편입한 점이 문제"라며 "부당권유는 형사처벌까지 들어가서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권유 위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소비자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감경받을 가능성도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단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직무 정지나 문책 경고 모두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지만 손 회장에겐 전 행장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은 제재가 통보됐다.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를 보면 우리은행은 면직을, 신한은행은 직무 정지를 각각 통보받았다. 이에 근거해 감독자인 손 회장과 전 행장의 징계 수위도 정해졌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과는 달리 부당권유 위반이 제재를 양정할 때 추가로 고려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9조에서 부당 권유를 금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제2 P2P 되나

금융 인사이트

이틀 새 저작권료 등락폭 244%
서킷브레이커 등 제재 장치 전무
금감원 '처음 들어본 생소한 사업'

7만8000원에서 3만3200원으로, 다시 9만6000원으로. 지식재산(IP) 금융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가수 업정화 노래 '디스코'의 가치가 날을 뛰었다. 하루 차이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자 이용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한 투자자는 "비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토했기도 했다. 최근 뮤직카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은행 이자보다 쓸쓸한 투자처를 찾는 재테크족이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뮤직카우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생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제도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으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의 일부를 매입해 플랫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가수 god의 '하늘색 풍선'에 대한 일정량의 저작권을 산 사람은 이후 방송, 노래방, 스트리밍 등을 통해 발생하는 '하늘색 풍선'의 저작권료 수익을 자신의 지분만큼 얻을 수 있다. 이용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용자 간 거래인 '마켓'을 통해서다. 자신이 구매한 곡 저작권을 다른 이용자에게 파는 것이다. 주식처럼 특정 곡에 대한 거래량이 늘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다른 이용자에게 팔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규제를 받



지 않아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디스코'의 가격은 전날보다 57% 떨어졌고, 그다음 날엔 187% 올랐다. 가격 차이가 큰 탓에 '야차'하는 사이 투자자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진다. 주식 시장에서 큰 가격 변동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일 가격보다 8~15~20% 하락하면 단계별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지된다. '디스코'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수준보다 6배 이상 가격 변동이 컸지만 제재는 없다. 뮤직카우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라는 IP를 금융과 접목했으나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됐다. 뮤직카우가 다루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해 대리중개에 있어서는 문제부 감독 대상이 되지만, 경매방식을 통해 지분을 사입하는

부분은 문제부가 소관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새로운 사업이다", "처음 들어본다"고 입을 모았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신규 자산으로서(금융당국의) 검토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금융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에야 법제화된 개인 간 금융(P2P)이 대표적이다. 2006년 시작돼 제도가 없던 14년 동안 P2P는 경영진의 '먹튀', 돌려막기 등으로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을 가로챘다.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중인 P2P는 지금도 부실 업체 도산 우려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제도의 공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국은 조속히 현황 파악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는(새로운 투자 모델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윤종원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최우선"

기업銀, 전국 영업점장 회의

IBK기업은행은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비대면으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2021년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종원 행장은 "2021년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을 밝히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 영업점장들의 변화 리드를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혁신금융 성과 가치화 △바른경영 정착을 제시했다. 윤 행장은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상반기에 중기대출 공급 비중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을 지원하고 구조적 한계기업에는 구조개선을 돕는 한편, 금융지원 조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잠재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고객접점과 고객경험을 증시하는 고객 지향적 사고로 전환하고 여신 구조와 금융지원 방식도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5일 '전국 영업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금융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중기금융 전문성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처방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부패를 제로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등 바른경영 정착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 이날 회의는 경영성과 우수 영업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모험자본 투자'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등 IBK혁신경영 우수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서지연 기자 sjy@

‘삼성 반도체’ 유치 나선 뉴욕·텍사스 거물 정치인

외신 “미국 증설 후보지 3곳”
삼성, 9000억 세금 감면 협상
텍사스에서 긍정적 반응 보여
불발 시 뉴욕·애리조나 물망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에봇 텍사스 주지사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방 정부들이 삼성전자에 적극적인 증설 유치 작전을 펼치고 있다.

7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뉴욕 등을 후보지로 두고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증설할 계획인 반도체 공장은 17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최첨단 공정을 포함한 팹이다.

증설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현재 파운

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주 정부 재무국(Texas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s)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는 현지 컨설팅 회사 ‘임팩트 데이터소스’(Impact Data Source)가 분석한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가 첨부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체 투자금 170억 달러(약 19조 원) 중 50억 6900만 달러가 공장과 부동산에, 99억 3100만 달러는 파운드리 사업 관련 장비

구매에 사용된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40억5500만 달러(약 4조5000억 원)가 지역사회 제조업 매출에 유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그 외에 유통과 물류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공장 건설 중 지역사회에서 총 89억 달러(약 10조 원)의 경제 활동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성전자는 오스틴시와 트래비스 카운티로부터 8억 5000만 달러(약 9012억 원)가량의 세제 혜택을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트래비스 카운티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지 언론은 트래비스 카운티가 지난해 7월 테슬라 기기팩토리를 유치하면서 10년에 걸쳐 세금 환급 형식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와 비슷한 형식의 인센티브 안을 삼성전자에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지 고위인사들도 삼성전자 투자 행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말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삼성의 반도체 공장 증설은 지역에 흥미롭고 잠재적인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버군스트 오스틴기술위원회 회장,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 등도 최근 삼성전자 증설 투자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수주한 인텔 사우스브리지 물량을 국내 공장이 아닌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앙처리장치(CPU) 등 고도의 기술력과 적시성을

요구하는 첨단 제품이 아님에도 인텔 외주 생산을 기흥 팹이 아닌 오스틴 팹이 담당할 건 국가적 차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라며 “(따라서)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 대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분석했다.

국내 산업계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미국이 아닌 국내에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주 정부 재무부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기술자들의 접근성과 기존 반도체 제조 생태계, 시장과의 거리, 공적·사적 파트너십 등 네 가지 기준으로 후보지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텍사스의 높은 세금이 고려요소”라며 “개선이 없다면 프로젝트를 애리조나나 뉴욕, 또는 한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기아, 내일 ‘애플카 협력’ 입 여나

2021 CEO 인베스터 데이
송호성 대표, 방향성 언급 예상
현대차도 한달 내 재공시 공언



송호성 기아 대표가 전용 전기차 모델 라인업의 스케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아의 애플카 생산 전망과 관련해 오는 9일 개최되는 기아 ‘2021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송호성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애플과 현대기아차의 ‘애플카’ 관련 협상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현대기아차 외에 다른 완성차업체들과도 애플카 생산을 위한 논의를 해 왔지만,

현대기아차가 애플카 생산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함으로써 협력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이달 초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

대차 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협의를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최근 애플 부품 공급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적어도 일본 내 6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기아차 주가는 작년 말 6만2400원이었지만 애플카 생산 가능성 호재로 이달 5일 10만1500원으로 62%나 급등했다.

마침 기아는 9일 오후 2시 인베스터 데이를 온라인으로 연다. 이 자리에는 송 대표가 직접 나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중장기 미래 전략 및 재무목표’를 발표할

다. 특히 지난달 8일 현대차가 애플과 협력설에 대해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송 대표가 애플카 생산 협력과 관련해 함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최소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한편 차 업계에서는 기아의 애플카 생산 실익을 놓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애플의 생산 전략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처럼 기아도 위탁생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애플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기아차에 탑재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김준형 기자 junior@

토요타 제친 현대차 베트남 첫 연간 1위

점유율 21.7%...기아 3위

현대차가 지난해 베트남 승용차 시장에서 토요타를 처음으로 제치고 연간 판매 1위에 올랐다.

7일 베트남자동차제조협회와 현대차 베트남 법인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승용차(소형 상용 포함) 7만 2834대를 팔아 점유율(21.7%) 1위를 차지했다. 2위(21.1%)인 토요타보다 2142대 더 판매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지 시장 수요가 전년보다 4% 감소한 상황에서도 현대차 판매량은 오히려 2019년보다 7.2% 증가했다.

기아도 25.9% 증가한 5만 2581대를 팔아 점유율(15.7%) 3위 자리를 지켰다.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6월 말부터 현지 조립생산 차량의 자동차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현대차의 작년 12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9.9% 급증했다. 기아차는 같은 기간 무려 111.3%나 많은 차를 팔았다. 모델별 판매 실적에서도 현대차의 엑센트(2위), 쏘나타(9위), 투싼(10위) 등 3종은 톱 10에 올랐다. 기아의 세라토도 6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2011년 베트남 타인퐁 그룹에 부품 제조를 통해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CKD)으로 진출했다. 2017년 3월에는 타인퐁 그룹과 생산합작법인(HTMV)을 세워 생산능력을 키웠다. 이 공장에선 엑센트, 아반떼(AD), 코나, 투싼, 쏘나타, 포터 7종을 생산한다. 이에 더해 판매·서비스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에는 타인퐁 그룹과 판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대차는 올해 초 본격 착공할 예정인 HTMV 2공장이 완공되면 최대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LG전자, 신안군에 국내 최대 ESS

2만9000가구 하루치 전력 저장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탑재

LG전자가 국내 최대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완료하고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KCH그룹, 한국서부발전, 탑솔라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솔라시티’에 단일 현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 ESS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92MW(메가와트), 배터리 용량 340MWh(메가와트시)에 달하는 대규모 ESS를 구축했다. 이는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350kWh(킬로와트시)임을 감안해 가구당 매일 11.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만9000여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다.

LG전자는 PCS, 전력관리시스템(PMS), 배터리 등 ESS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제품뿐만 아니라 설계·시공에 이르는 ESS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한 ESS는 LG전자 PCS와 PMS,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했다. LG전자가 배터리를 포함한 ESS 구성 요소 전부를 3년간 무상 보증한다.

LG전자는 PCS, 배터리, 수배전반을 완전히 분리해 실내온도 및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ESS를 설계했다. 수배전반은 발전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해주는 장치다. 또 24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화재확산 방지 시스템도 적용됐다. 만에 하나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기감지기가 화재여부를 감지하고 해당 배터리 모듈 내에 물을 직접 주입해 확산을 차단한다.

송영록 기자 syr@



LG전자 직원들이 전남 신안군 안좌스마트팜앤솔라시티에 구축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동작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삼성 ‘비스포크’ 100만대 기념 최대 200만원 혜택

삼성전자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스포크 페스티벌(BESPOKE Festival)’을 개최한다.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가전 ‘비스포크(BESPOKE)’의 누적 출하량 100만대 돌파 기념이다.

비스포크 페스티벌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며, TV·냉장고·세탁기 등 다양한 맞춤형 가전 11개 품목 중 6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최대 2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급하는 ‘비스

포크-큐(BESPOKE-Q)’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결혼, 이사, 신학기 등 새 출발을 앞둔 삼성디지털프라자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혼수클럽 가입 고객은 최대 50만 포인트 △웨딩 마일리지 가입 고객은 삼성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200만 캐시백 △입주클럽 가입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 포인트 혜택이 주어진다.

또 행사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TV·냉장고·의류 청정기 등 삼성전자 신제품(제품별 1명)과 웨스턴조선호텔 2박 3일 숙박권(10명) 등을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백신수송·화물기·여객〉

3無 LCC 올해도 '시계 제로'

제주항공·진에어 등 부정기 화물사업 강화에도 손해 지난해 줄줄이 수천억 적자... 고용지원금 연장 신청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올해도 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적은 물론, 고용유지에도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8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6일 작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 항공사는 지난해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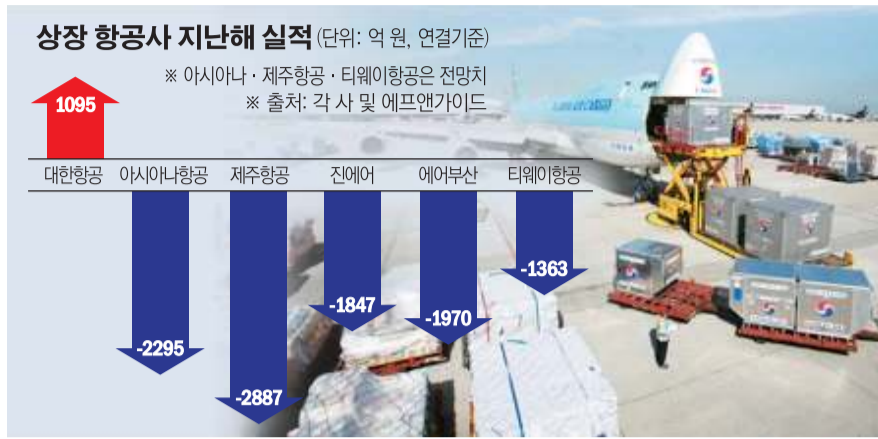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영업손실(연결 기준) 22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2887억 원), 티웨이항공(-1363억 원)도 큰 폭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지난해 각각 1847억 원, 197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화물 수

요 증가에 힘입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영업 흑자(연결기준 1095억 원)를 달성했다. 항공사들의 실적은 불가피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여행 수요가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항공데이터 분석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작년 여객 교통량은 전년 대비 67% 줄었다. 일부 LCC들은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 사업을 강화했다. 진에어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고 제주항공은 기내 좌석을 화물을 실었다. 하지만 부정기 노선이다 보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항공사들은 올해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올해 여객 수요는 2019년의 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백신 보급으로 자가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인 내년이 돼야 여행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다.



LCC들은 더 큰 어려움에 부딪칠 전망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의약품 운송 자격인 'CEIV 파르마(Pharma)'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수송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LCC들은 고정비용을 줄이고자 무착륙 관광 비행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미지수이다. 지난달 관광 비행 탑승객은 전달(1520명) 대비 약 20% 줄어든 1212명이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항공

업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특고) 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특고 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혜택을 받는다.

한국항공협회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회복이 불투명하다"라며 "내달 말 종료되는 특고 업종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연간 180일 한도로 묶여있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4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화학, 브랜드가치 4조 화학 톱5 중 나홀로 성장

LG화학이 전 세계 주요 화학기업 중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화학 기업 25' 보고서에서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는 36억 200만 달러(약 4조46억 원)이었다.

순위는 전년과 같은 4위지만 브랜드 가치는 1년 사이에 2.9% 성장해 4조 원대를 유지했다.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는 2018년 24억2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5억 달러, 올해 36억2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3년 새 50% 이상 커졌다.

특히 상위 5위에 든 글로벌 화학기업 중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기업은 LG화학이 유일했다.

독일 바스프는 1위를 유지했지만 브랜드 가치는 전년보다 7.5% 감소한 78억 78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지난해 2위였던 미국 다우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37억 2900만 달러로 23%나 감소하며 3위로 밀려났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육중한 몸집 코너링 민첩 '반전 매력'

BMW 뉴420i 쿠페 타보니 그릴부터 차체까지 커진 4시리즈 저속 반응성 좋아 거칠지만 재미

BMW 4시리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최신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면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성능 역시 놓치지 않았다.

2도어 쿠페 모델인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사진)'를 지난 2일 인천 영종도에서 만났다. 가장 먼저 새로운 형태의 그릴이 시선을 잡아끈다. 그간 BMW의 그릴은 가로가 넓은 수평 모양이 주를 이뤘다. BMW는 그릴 모양이 사람의 신장을 닮았다는 뜻에서 '키드니 그릴'이라 부른다.

뉴 4시리즈의 키드니 그릴은 세로가 더 긴 수직 형태다. 이전 세대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졌다. SUV에도 어울릴만한 크기다. 양옆에 자리한 그물 형태의 공기 흡입구, 날렵한 헤드라이트와는 제법 잘 어울린다. 역동적이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호불호는 갈릴 듯하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커졌다. 길이(전장)와 너비(전폭)는 각각 4770mm, 1845mm로 1세대보다 130mm, 27mm씩 늘어났다. 높이(전고)는 1385mm다. 제네시스G70보다 앞뒤로 더 길고 높이는 낮다. 실내 공간도 넓어졌지만, 쿠페 모델의 특성상 뒷좌석은 성인 남성이 앉기엔 다소 불편하다. 실내를 번잡하지 않고 깔끔하다. 센터페시아에는 다양한 조작 기능을 담은 날찍한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넣어 버튼 배치를 최소화했다.

시승은 영종도 일대 국도 약 60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시승차는 2.0리터 4기통 가솔린 트윈파워 터보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30.6kg·m의 힘을 낸다. 8단 스텝트론릭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맛물리고, 제로백(시속 0→100km) 7.5초다.

주행을 시작하면 준수한 성능을 곧바로 느낄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 능력도 뛰어난 편이지만, 진정한 동력 성능은 속도를 내고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다.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 시 가속 페달을 깊어서 툭툭 밟으면 정확히 그 박자대로 차체가 앞으로 치고 나간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설정하면 저속에서의 반응도 훨씬 민첩해진다. 속도를 내도 실내는 조용하다. 엔진 소리는 거의 유입되지 않고 풍절음도 차단된다.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코너에 진입해도 밀림 없이 민첩하게 방향을 튼다.

고속에 접어들수록 차체는 낮게 깔린다. 승차감이 다른 중형 세단처럼 정숙하진 않다. 속도와 도로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인데, 좀 거칠긴 해도 운전할수록 재미가 느껴진다.

첨단 전자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에 포함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도 명민하게 작동한다. 특히,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다. 차에 비해 강하게 작동한다.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 할 때 스티어링 휠을 강하게 잡아당겨야 할 정도다. 판매가격은 5940만 원이다. 3월 중에는 4시리즈의 첫 번째 M 퍼포먼스 모델 뉴 M 440i xDrive 쿠페와 컨버터블도 출시된다.

인천 영종도=유창욱 기자 woogi@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월호 발매

COVER STORY
몸속의 숨은 권력자 '호르몬'

PART1. 다시 젊어지고 싶은 당신, 호르몬에 길이 있다

PART2. 호르몬으로 사랑 일기

PART3. 차진 피부와 나잇살 잡는 '장춘호르몬' 관리법

PART4. 호르몬의 불균형, 비만

PART5. 사니머로 가는 사다리, 갱년기

PART6. 사니머가 알아야 할 호르몬 질환 10

신라보가 만난 사람

“차터 렌터도 실 속에서 실어간다”
곽행태 교수

나만의 맛을 찾는 여성
모델 에이전시 대표 일렉스 강

미쳤다는 소리 슬며시 들었지만
김현희 부왕전 신공로 귀농한 허진영 씨

전통 정원의 멋
77세 노인이 지은,
좀 기발한 별墅

시니어라이프 리더의 품격
직장을 다니는 시니어 대부분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개인의 역량이나 열정이 무기가 됐던 조직원 시절과 다르게 전체의 성과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성패를 가른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직장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니어 리더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할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려 한다.

신설날 풍속도
코로나 Off 위한 맨션 On 연휴 나기

엘스+
갱년기 피부 변화의 원인, 에스트로겐 제대로 알자

구해줘 부동산! 2021 부동산 트렌드
지난해는 '부동산의 해'라고 할 만큼 부동산 이슈가 사회를 뒤덮었다. 영끌, 파누비임 등 부동산 관련한 온갖 신종어의 이슈로 시끌벅적했다. 그렇다면 2021년 신축권,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8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넷마블 G타워에 새 동지 '뉴 코웨이' 시대 연다

11년 만에 구로로 사옥 이전
'대주주' 넷마블과 협력 강화

코웨이가 11년 만에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넷마블 신사옥 'G타워'로 터전을 옮긴다. 넷마블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코웨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코웨이는 지상 39층, 지하 7층, 전체 면적 18만㎡ 규모의 넷마블 신사옥 'G타워(사진)'로 사옥을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일은 22일로, 신사옥에는 코웨이 임직원 10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코웨이 사옥 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코웨이는 웅진코웨이 시절인 2009년 말 서울 중구 내외빌딩에서 서소문에 있는 중앙일보 빌딩으로 사옥을 옮긴 바 있다.

코웨이는 대주주가 된 넷마블과 물리적 결합을 이룬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옥에는 코웨이와 넷마블 외에도 많은 IT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2019년 말 코웨이 지분 25.08%를 1조7400억 원에 인수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코웨이는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로 사명을 변경하고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코웨이는 업무 공간 통합을 계기로 양사 간 업무 효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넷마블의 혁신 DNA를 비즈니스 전반에 긴밀히 접목해 시너지 창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환경가전기업으로의 도



약도 속도를 올린다. 코웨이는 이해선, 서장원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 후 넷마블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장원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신사옥에서 혁신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펼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아 글로벌 환경가전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adw@

“초기 투자자는 동반자, 소통하며 성장”

제2벤처붐 숨은 주역
엑셀러레이터 릴레이 인터뷰

박현준 젠티움파트너스 대표

증권업계 출신 시드투자 강점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 투자



박현준 젠티움파트너스 대표가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는 동업자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시드 레벨이나 극초기 투자자와 창업자가 지켜야 할 부분이다. ‘당신은 투자하고 나는 경영을 할게요’라는 마음으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겸손함과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2018년 12월 설립된 신생 엑셀러레이터 ‘젠티움파트너스’ 박현준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젠티움파트너스는 박현준 대표를 비롯한 운용 파트너들이 모두 증권업계 출신으로 시드 투자에 강점을 두고 있다. 팜에이트(스마트팜 솔루션),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약물전달시스템 개발), 제로그램(백패킹 아웃도어 브랜드), 울렛메이커(당구장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에 베푼다.

박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장애가 항상 있어서 이를 창업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상 대표

가 겸손하고 팀원들과 수평적으로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오래간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기업의 경우 실패를 하더라도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 재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로 달라진 투자업계 동향에 대해 ‘All or Nothing’으로 진단했다.

그는 “인기 있는 분야(바이오, 비대면, AI)는 과밀하게 모여서 투자 밸류가 비싸지고 있는 한편, 비인기 업종(전통 제조업)은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등 편식이 심해졌다”며 “돈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마켓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은 코로나로 혜택을 받을 업종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젠티움파트너스는 전통적인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령 비접촉식으로 키오스크나 엘리베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철근 가공을 대체할 로보틱스, 배터리 걱정 없이 자가발전 가능한 치료용 의료기기 등이다.

박 대표는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몇 년 이상을 봐야 하는데,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 코로나처럼 시장에 큰 임팩트가 왔을 때 ‘이 스타트업은 이렇게 하면 잘 풀리겠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며 “대기업과 연결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주기도 하는데 이는 곧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윤기쁨 기자 modest12@

중기부, KSC 참여 스타트업 120개사 모집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K-스타트업센터(KSC)에서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벤처·창업기업 120개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도 뉴델리 △프랑스 파리 △핀란드 헬싱키 등 현지 거점을 중심으로 한국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현지 창업생태계 정착→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글로벌화 플랫폼이다.

모집대상은 투자실적을 보유한 업력 10년 이내의 벤처·창업기업으로 지역별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된다. K-유니콘 프로젝트,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등에 선정돼 사업 모델의 확장성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 요건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다.

K-스타트업센터 기업에는 시장검증과 현지 정착을 위한 2단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현지 사업화 자금 6000만 원, 현지 센터의 사무공간 그리고 법률·회계·세무 컨설팅 등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전문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엑셀러레이터가 직접 운영한다.

선정기업은 현지 진출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투자자, 파트너사, 정부 기관 등을 만나고(10일 내외, 5월), 기업별 전략에 따라 협업 관계 고도화, 현지 법인 설립 등 해외 사업화를 추진할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8주, 7~10월)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희망 진출 국가를 선택해 영문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LG U+, 납품대금 160억 조기 지급

중소 협력사 2000여 곳에 100% 현금으로... “상생 이어나갈 것”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맞아 2000여 중소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 16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 설 명절 전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조기 집행된 납품 대금 누적 액수는 131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

사에 지급된다. 대금을 조기 확보한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명절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3~5월 사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된 거래 대금은 약 700억 원에 이른다.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저리로 자금을 대어주는 7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300억 원의 직접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통신장비나 솔루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채택된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품 구매를 보장하는 ‘협력사 제안의 날’도 진행 중이다.

김중섭 LG유플러스 동반성장·구매 담당은 “명절을 앞두고 대금 조기 지급을 해 협력사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파트너사들과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이공계 대학생, 산업현장서 문제해결 역량 키운다

과기부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 사업
대학교와 공동으로 온라인 명품 강좌 개발·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인재 양성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7일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이공계 대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이 현장 경험을 쌓으며 산업체와 함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과 대학 공동 온라인 명품강좌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복수의 대학이 1개의 연구단을 구성하는 ‘컨소시엄형’으로 1개 연구단(컨소시엄)을 시범적으로 지원하

고, 그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연구단은 실제 현장에서 산업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 교수의 지도·자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착오 속에서 대학생 연구팀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연구팀(실전문제연구팀)은 대학원생 팀장 1인, 학부생 팀원 4인 내외, 지도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하고 팀별 100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이울러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 및 참여 산업체의 실무 관련 수요 등을 파악해 대학이 공동으로 온라인 명품강좌를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여러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온라인 교육 강좌를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와 연계해 운영하고,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강좌는 기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8일 사업공고를 하고 3월 9일까지 4주간 대학으로부터 연구단(컨소시엄)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18억 원(1개 컨소시엄)으로, 60개 대학생 연구팀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명품강좌를 개발·운영(4개 강좌 이상)하는 것을 지원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카카오엔터-특허청 ‘AI 활용 업무 고도화’ 맞손

유사 특허검색에 AI 기술 적용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특허청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업무 고도화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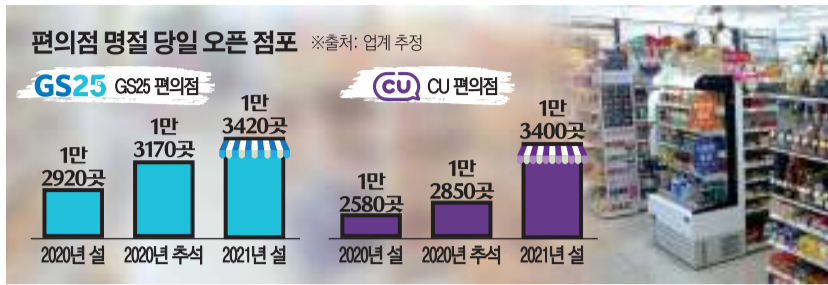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8일 특허청과 인공지능 기술을 ‘유사 특허 검색 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술 이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월 다국어 번역 처리 기술 ‘카카오 i 번역 엔진’을 특허청의 해외 특허 문헌 분석 및 번역 업무에 활용해왔다. 이번 후속 협약을 기반으로 특허 검색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시 다양한 문서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이때 특허 심사 대상 문헌과 유사한 문헌을 찾아주는 ‘유사 특허 검색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정확한 키워드 매핑이 되지 않더라도 문헌 내 핵심 키워드 정보, 문헌 간 유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사한 문헌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 비교 분석도 가능해 해외 특허 문헌 비교 작업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은 기자 gogumee@

“귀포족·밸런타인데이 특수 잡자” 설날 문 여는 편의점



명절 자율 휴무제에도 개장점포 ↑ ... GS·CU 올해 8%만 휴무 ‘팬데믹 타격’ 매출 만회... 택배·대형마트 휴무 반사이익 기대

편의점들이 최근 몇 년새 명절 자율 휴무제를 도입했음에도 올해 설날 문 여는 편의점은 되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귀포족(귀성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밸런타인데이라는 편의점 최대 명절까지 겹쳐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당일(12일) 편의점 GS25와 CU 점포는 전체 점포 가운데 8% 정도만 문을 닫을 전망이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설 당일 문을 닫는 가맹점의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점포는 총 11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반영해 명절 당일 휴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가맹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지만 지난 추석부터 새로 도입한

‘자율 휴무 신청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는 점포내 전산시스템(POS)으로 신청만 하면 될 수 있게 돼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GS25의 작년 11월말 점포수가 1만4520개 정도로 추산할 때 대략 7.6%가 설 당일 문을 닫는 셈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추석에도 1100여 곳이 휴무에 나선 바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명절 귀성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타격으로 하루라도 매출을 만회하려는 점주도 있고, 명절 연휴 기간 밸런타인데이가 긴 점도 작용했다”면서도 “다만 유흥가나 오피스 상권은 매출 부진에 아예 문을 닫겠다는 점주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CU는 지난달 8일까지 점포 단말기로 지원을 받은 결과 설 당일 점포의 10% 가량이 문을 닫기로 했다. 작년 11월 기준 이 업체의 점포수는 1만4898개로 계산할 때 1500여 개가 문을 닫는 셈이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 전체 점포의 10% 가량인 1450

개 가량이 휴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휴무 점포는 50곳이 증가했지만, 올해 설 당일 문 여는 점포는 300여개가량 더 늘었다.

CU 관계자는 “본사에서 전산으로 신청을 받았고, 신청한 점포는 모두 설 당일 휴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는 신청을 받고 취합 중이다. 이마트24는 계약 시 영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신청만으로 한도 내에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마트24의 지난해 추석 당일 문을 닫은 점포는 1374개로 전체의 27.7%를 보인다. 이는 2019년 추석 35%(1446곳)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실제 구인구직업체 사립인이 직장인 14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설 연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설 연휴에 고향 방문 대신 집에 머물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설 연휴 마지막 날과 겹치는 밸런타인데이에는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데다, 연휴 기간 택배도 휴무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한편, 편의점들은 설 연휴와 밸런타이를 겨냥해 이색 상품 출시에 공 들이고 있다. GS25는 △카카오프렌즈 7종 △어머어스 4종 등 총 17종의 단독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CU는 말표 구두약, 서울랜드 지구별 컬래버 상품을 내놨다. 세븐일레븐은 시멘트 브랜드 ‘천마표 시멘트 팝콘’을, 이마트24는 하이트진로 두꺼비와 손잡고 두꺼비 굿즈 2종(저금통세트·컵세트)을 출시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명절 때마다 매출 3배 ‘경총’ 효도 선물 왕좌 지키는 홍삼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주자 홍삼의 인기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전년 대비 6.6% 성장한 4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홍삼 시장(1조4300억원)은 건기식 원료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역 기능 강화 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기식 원료로,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산성다당체’와 같은 성분이 항체 형성을 촉진해 면역력에 특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1위는 ‘정관장’ 브랜드를 앞세운 KGC인삼공사다. 국내 홍삼 시장에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추석, 설날 등 명절 때마다 평월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할 만큼 ‘시즌 캐시카우’로 자리잡았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정관장 홍삼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는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 가족, 친지 간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KGC인삼공사는 액상형 홍삼파우치 ‘정관장 홍삼톤’이 지난 10년간 누적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최근 전했다. 정관장 홍삼톤은 홍삼 농축액을 주원료로 다양한 생약재를 배합한 복합 한방 액상 파우치 브랜드다. 1993년 출시 이래 30여 년 간 꾸준히 팔린 정관장 대표 스테디셀러다.

특히 정관장 홍삼톤은 설날을 비롯한 명절에 평월 대비 5배 이상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액상 파우치 제형으로 섭취하기에 부드럽고, 적당한 부피감에 고급스러운 적금색 패키지로 구성돼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맞춤형 홍삼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사는 지난달 4050 중년 여성을 위한 ‘발휘 발효홍삼 휘영’를 새롭게 선보였다. ‘발효홍삼 휘영’은 100% 유산균을 발효한 ‘발효홍삼 농축액’과 ‘회화나무 열매추출물’을 함유해 제품 하나로 면역력과 갱년기 여성을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다. 한국야쿠르트사는 ‘발효홍삼 휘영’ 출시로 전년령층 맞춤형 제품군을 갖

추고 발효홍삼 브랜드 ‘발휘’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기식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이너뷰티 브랜드 ‘큐브미’를 통해 홍삼 스틱 ‘레드 진생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 기존 홍삼의 쓴맛을 개선하고,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려는 젊은 현대인이 타겟이다.

단시간에 높은 압력을 가해 홍삼의 유효성분을 최대한 추출하는 ‘천삼화’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홍삼 인삼의 붉은 열매인 진생베리, 세븐베리 추출물을 함유했다. 업계는 향후 홍삼을 비롯한 건기식 시장이 ‘개인 맞춤형 시대’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홍삼을 넘어 차세대 경쟁력 있는 소재 발굴 및 다양화, 효능 중심의 기능성 제품 개발과 정관장만의 노하우를 이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흑미 승능”으로 입가심해요

롯데마트가 롯데칠성음료에서 일반 소비자들과 협업해 개발한 음료 ‘까봉’과 롯데제과의 인기 쌀과자 쌀로벌의 모음팩 ‘쌀가미!’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까’만 흑미와 승능의 진한 만남이라는 뜻의 ‘까봉’은 입안의 텁텁함을 씻어내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식후에 마시던 승능을 간편하게 RTD(Ready To Drink) 음료로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한 제품이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알까지의 추억’ 바둑 초콜릿, 몰티저스도 제쳤다

CU가 지난달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 ‘최강 미니 바둑 초콜릿(2000원, 이하 바둑 초콜릿·사진)’이 인기 초콜릿 ‘몰티저스’를 제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U는 지난달 출시된 바둑 초콜릿은 소비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출시되자마자 1월 한 달 동안만 5만 개 이상 팔렸다고 7일 밝혔다. 매출 순위는 초콜릿 카테고리 내에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마의 스낵’으로 불리며 최근 인기몰이를 중인 몰티저스보다 두 계단 높은 순위다.

이 제품은 최근 SNS에서 가족 간 오목, 알까지 등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공유되면서 인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상품 소개 콘텐츠 댓글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원정대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달릴 정도로 큰 화제다.

사실 바둑 초콜릿은 한 대형 제조사가 생산했던 상품으로 2000년대 후반 단종된 상품이다. 지난해 식품업계에 불어온 레트로 트렌드에 맞춰 확장시절 친구와 함께 즐기는 추억을 그리워하는 3040세대를 중



심으로 재출시 요청이 이어졌다.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탄생된 바둑 초콜릿은 바둑알과 바둑알통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맛은 물론 상품 패키지까지 기존 상품과 유사하게 구

현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바둑판도 추가로 제공해 기존 상품과 차별화했다.

되찾은 추억에 고객 반응은 폭발적이다. 실제, 바둑 초콜릿의 인기 덕분에 초콜릿 카테고리의 지난달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보다 15.8%나 올랐다.

바둑 초콜릿이 뜨거운 반응을 얻자 CU는 알까지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코미디언 최양락과 콜라보해 상품 홍보에 나선다. 최양락은 배우자 평현숙과 함께 바둑 초콜릿을 활용한 코믹 알까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영상은 최양락 공식 유튜브 ‘최양락의 희희양락’에서 5일, CU 공식 유튜브인 ‘씨유튜브’에서 10일 확인할 수 있다. 씨유튜브 구독 후 영상에 댓글을 달고 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바둑 초콜릿을 증정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남양유업 마케팅, 장남 흥진석 상무가 지휘

총괄본부 신설 등 확대·개편

남양유업이 마케팅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흥진석 남양유업 회장의 장남인 흥진석 상무가 조직의 수장을 맡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달 말 ‘기획마케팅총괄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마케팅전략본부’와 ‘기획본부’가 기획마케팅총괄본부로 합쳐진 게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이 조직의 장은 흥진석 상무가 맡았다. 흥 상무는 지난해 경영전략본부에서 마케팅전략본부로 이동했고, 직전까지 마케팅전략본부장을 지냈다.

부서가 커지면서 흥 상무가 수장을 맡게 되자 업계에선 “남양유업의 경영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남양유업 최대주주는 발행주식총수(72만 주) 중 37만2017주를 소유해 51.68% 지분을 보유한 흥 회장이다. 흥 상무는 보유 지분이 없다.

다만 회사 측은 조직개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남양유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변동으로 실무적으로 바뀐 것은 크게 없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경영 승계 과정과도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 문제가 된 이후로 수년째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남양유업은 누적 영업손실 47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의 영향으로 급식 등의 매출 타격을 입으며 매출 1조 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대어’ 많고 개인배정 확대... 올해도 ‘IPO 열풍’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어 카뱅·카카오페이지·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등 연내 상장 개인 몫 공모주 30%로 늘어 배정물량 절반 이상 ‘균등배분’

올해도 공모주 시장은 뜨겁다. 올해 첫 ‘대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초부터 뜨거운 공모주 시장에 불을 지폈다. 상장 속도를 내자 다른 대형 종목에도 시장 이목이 쏠린다. 증권가는 잇따른 대어 출격으로 공모주 시장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5일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4~5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9~10일 일반정약을 받는다.

총 공모주식 수는 2295만 주로 공모 희망가는 4만9000원~6만5000원이다. 공모 예정금액은 최대 약 1조4918억 원 규모다. 상장 예정일은 3월 18일로 내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맡았다.

연초부터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 지난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으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앞다퉀 청약에 몰리면서다. 올 1월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1897:1을 기록했다. 연초에 상장한 엔비티는 사상 최대 청약경쟁률인 4398:1을

올해 상장 예정 주요 종목 현황

기업명	현황	상장 예정 시기
SK바이오사이언스	증권신고서 제출	3월 18일
SK IET	상장예비심사 청구	상반기
크래프톤	주관사 선정	
HK이노엔	주관사 선정	
카카오페이	주관사 선정	
야놀자	주관사 선정	하반기
카카오페이지	주관사 선정	
카카오뱅크	주관사 선정	
LG에너지솔루션	주관사 선정	
한화중합화학	주관사 선정	
현대중공업	상장 계획 발표	

※ 출처: 신한금융투자, 금감원 전자공시 등

기록해 ‘공모주’ 강세를 입증했다.

수요예측을 마치고 2월 상장을 기다리는 기업도 있다. 솔루엠, 신한스팩7호, 와이더플래닛,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아이퀘스트, 하나금융스팩17호 등 6곳이다. 이 밖에도 약 1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수요예측 및 상장 과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올해 첫 대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월 상장을 앞두고 열기를 더하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월 IPO 예상기업은 12~14개 수준으로 지난 2003년 이후 동월 대비 최대 기업이 상장할 것”이라며 “2000년과 2002년 상장 기업 수가 각각 10, 24개 기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관측했다.

증권가는 올해도 공모주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대형 종목 대부분이 성장주에 몰리면서 기대감도 높고 있다. 카카오게임즈(페이·뱅크·페이지),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들이 지난 연말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투자자의 참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우선 개인배정 물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감축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비중은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또한,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제로 나눠줘야 하는 제도다. 최소 청약단위인 10주 이상만 청약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은 수량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는 투자자가 더 많은 공모주를 받는 비례 배정제였다. 지난해 SK바이오팜, 박히트 등 ‘현금부자’들이 ‘대어’ 물량을 쓸어간 배경이다. 이에 올해 마련된 ‘균등 배분’은 소액개미에게 공모주 투자 기회를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상장 대기 중인 대형 종목들이 대부분이 성장주에 몰렸다”며 “일반 청약자 배정 확대로 개인 투자자 참여 기회가 많아진 만큼 유동성이 공모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호예수로 묶인 물량 비율이 높은 공모주의 경우 상장 후 접근 시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과 보호예수 해제 시기를 고려한 접근이 적절하다”며 “단기 오버행 부담이 대부분 해소되는 상장 1~3개월 이후 펀더멘탈이 견조하고 테마나 업종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희림 기자 wiseforest@

올 순매수 상위 10개 성적표 보니

外人 수익률 4% ‘방긋’ 동학개미 -1.9% ‘울상’

올 들어 국내 증시는 사상 최초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고 거래대금, 증시 주변 자금 모두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힘이 뒷받침되고 있다.

국내 증시 순매수량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의 거래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투데이가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올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과 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집계했다.

이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네이버(NAVER)로 5255억 원을 사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8742억 원을 사들였고 평균 수익률은 4.0%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단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만 10조 2183억 원에 달했고 삼성전자우도 1조 9911억 원을 순매수했다. 현대모비스가 1조 481억 원 매출 우위를 기록했고 현대차(9293억 원), 기아차(8423억 원), LG전자(8115억 원), SK하이닉스(7774억 원) 등을 많이 샀는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금액만도 18조 86억 원에 달하며 다른 투자체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10개 종목 중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4개에 불과했고 평균 수익률도 -1.9%로 외국인과 기관(2.1%)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이다.

올 들어서는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만큼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1월만 해도 거래가 이뤄진 20거래일 중 코스피의 하루 변동 폭이 2%를 넘는 날이 무려 16일에 달했다. 이는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와 기관·외국인의 매도세가 충돌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에 대비한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김형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수익률이 10%를 넘기면서 위험자산 살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기간 조정’ 일 가능성이 클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外人 2조8742억 사들여
두산퓨얼셀 14.5% 수익률

개인 투자자 18조 순매수
플러스 수익률 4종목 그쳐

1월 변동폭 2% 이상 16일
‘변동성 대비 신중 투자’

부동산 투자에도 ‘ESG 바람’

이지스자산 ‘오토웨이타워’ 등 국내 건물 ‘친환경 인증’ 잇따라 EY한영, 오피스 탄소배출 제로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선언

부동산 투자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가치 평가 요소로 자리잡았다. 해외 투자를 받을 때도 해당 건물이 친환경적으로 운용되는 지가 중요해졌다. 해당 건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4년 18조 달러였던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2030년 1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동산 투자의 비중은 3% 수준이지만 점차 비중이 늘어갈 것이라 업계 분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의 그린, 디지털화”라면서 “부동산 자산에서

의 ESG투자 중 당장 도입 가능하고 환경적 효과가 큰 분야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감축,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재의 사용 등 건축물을 친환경적(Green)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건물에 친환경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서울 삼성동 ‘오토웨이타워’는 미국 녹색건축물인증 제도 LEED의 ‘골드’ 등급을 받았다. 실시간 에너지 진단 웹서비스(Soft BEMS)를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즉 탄소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EY한영은 2025년 회계연도까지 글로벌 모든 오피스의 직접(Scope 1~2)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Net Zero)’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서 그 외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친환경’ 부동산은 실제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 총무청(GS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가장 하위 고려대상이었던 건물의 친환경 인증 요인이 2016년 3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에 앞서 ESG 요소가 중요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자산의 특징 변화

순위	2006년	2016년
1	위치	위치
2	건물의 노후화	유량 테넌트 여부
3	유량 테넌트 여부	Green 인증
4	임대 리뷰	건물의 노후화
5	싱글/멀티 테넌트	임대 만료기간
6	임대 만료기간	임대 리뷰
7	Green 인증	양도 관련 사항

※ 출처: 미국 연방 총무청

해진 것이다. 임대료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의 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도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칼퍼스(CalPERS)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은 부동산 투자 시 ESG 기준을 중점 고려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체적으로 ESG 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빌딩 관리에 나섰다. 실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글로벌 부동산 지속 가능성 벤치마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Star’를 획득했고, 향후 운용할 부동산에도 친환경 인증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손영지 기자 eom@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12.5% 증가한 72건

포상금 4억 넘어 ‘역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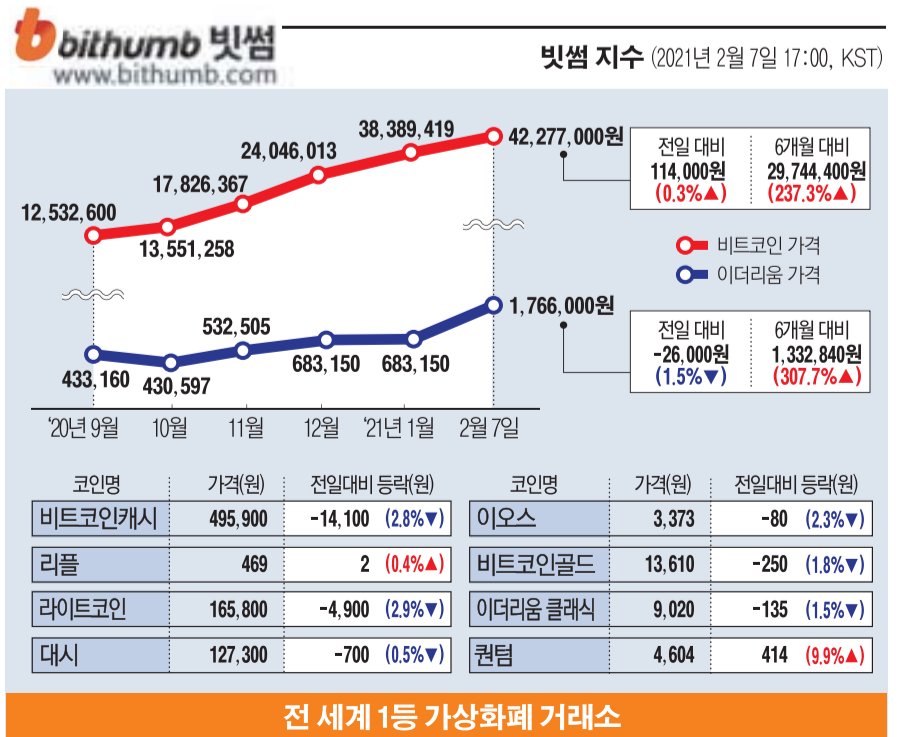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는 3배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8건(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가 도입된 것이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및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상태였다.

지난해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총 4억84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억1940만 원보다 2억8900만 원(242%) 급증한 것이다. 총 12명에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3403만 원이었다.

김하늬 기자 honey@





세상을 바꾸는 금융

소비의 기술에서 투자의 기술까지
KB 금융플랫폼에서 즐기는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자산관리도 역시 KB

소비스타일을
분석해 주고

흩어진 자산들을
모아 주고

'로보어드바이저'와 '전문가'가
추천해 주고

프리미엄 정보까지 전문 PB가
관리해 주는



KB 금융플랫폼은 'KB스타뱅킹', 'KB Pay'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간편하고(Simple), 더 빠르고(Speedy), 더 안전한(Secure)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KB증권 |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 푸르덴셜생명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생명보험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신용정보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본 기관에 612억 배상해야”

재판부 “허위 재무제표 공시... 투자자 판단·주가에 영향”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전직 경영진, 당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중 153억 원을 안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약 5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에 약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같은 날 유사한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

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약 11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612억여 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감추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사건으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안전회계법인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기 전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재호·김갑중의 분식회계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과 감사위원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계 실무를 담당해 본 적 없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단 보고서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종용 기자 deep@



김진숙 복직 '희망투박이 행진'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과 일행들이 희망투박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보험금 청구 기준일은 사고 발생일”

보험금 청구 기준일은 사고 발생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A 씨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11월 투신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

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의 사망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씨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여러 사정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유족에게는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5년 7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A 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부터 진행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A 씨의 사망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사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던 점, 공무원연금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비만치료제 리베이트’ JW신약, 과징금 2.4억

90여곳에 8억 제공 적발

JW신약이 비만치료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철폐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신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의 계열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4년 1월~2017년 4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공 방식을 보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이나 물품 지원 등)을 선(先)지원했다.

JW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병·의원의 처방 약정 이행을 관리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수롭지 않다. 실패들은 문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수롭지 않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형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드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라 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8면 | 148쪽 | 2019년 12월 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가치를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 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215.800원

민·관 협력 '물산업 팀 코리아' 광역상수도 첫 수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등으로 물관리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50년 이상 축적된 한국의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세계 진출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을 최종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사업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앞으로 30년간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경쟁 입찰사업에서 현지 기업과 경쟁해 거둔 성과로 한국판 광역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다.

◇민관 손잡은 '물산업 팀 코리아' 해외 진출=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인 까리안 댐을 수원으로 해 자카르타주, 팅그랑시, 남팡그랑시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약 200만 명에게 공급 가능한 규모로 국내에서는 청주정수장의 생활용수 공급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다. 2017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자원공사가 본

수자원공사, 2000억 규모 인도네시아 까리안 상수도사업 수주 31개국 ODA사업 수행... 탄탄한 기술력·노하우 뒷받침된 성과 설계·시공 국내기업 참여... 3개 지자체에 하루 40만톤 물 공급

광역상수도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해 사업화하게 됐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해 수주하고, 향후 설계와 시공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물산업 팀 코리아'는 해외 진출의 대표적 사례"라며 "설계, 건설, 기자재·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물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스마트물관리(SWM)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같은 특화 도시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ODA 사업 기반, 31개국 87개 사업 진출=한국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중심에는 수자원공사가 있다. 수자원공사는 1994년 중국 분하강 유역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진출했

다. 지금까지 31개국에서 87개 사업을 수행했다. 현재 77개 사업은 완료했고, 1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동·서남아 10개, 중앙아·중동 4개, 중남미 2개이며, 총사업비는 약 38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수많은 사업에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인정받으면서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 등 해외 수주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를 대항해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ODA 사업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시범사업'과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안그렌시 우수을 제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ODA 사업을 발판삼아 다년간 개발은행(MDB) 국제입찰사업 수주에도 성공했



인도네시아 까리안에 건설 중인 '까리안댐'. 한국수자원공사는 까리안댐 수원으로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상수도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다. MDB 사업은 사업확대 잠재력과 파급력이 높은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MDB 진출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주한 '서우즈베크 상수도 개발 사업관리 컨설팅'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재원을 통해 우즈베크 주택공공사업부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기업과 경쟁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2024년까지 총 51개월 동

안 우즈베키스탄 서부에 있는 카리칼팍스 탄주 지역의 식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 예정이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투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12월에 수주한 총사업비 2억1200만 달러의 '솔로몬 티나강 사업'은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 인근에 발전용 댐과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중부발전 '산업재해 근절 원년' 선포

한국중부발전이 안전문화 혁신과 협력기업과의 상생 강화를 통해 '2021년 산업재해 근절 원년의 해'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현장의 작업계획 단계부터 작업종료 시까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현장 조치 확인을 위해 발전회사 최초 안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전 사업소 현장 안전팀을 신설했고 발전현장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을 평가한다.

작업 전엔 차단기, 밸브 등에 대한 2중 안전장치 LOTO(Lock Out Tag Out)를 설치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

지 않도록 계통격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고위험 작업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경영진 안전정보제를 도입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동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의 정결과 정리정돈 등 3정 5행(정위치, 정량, 정품,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에 대한 우수사업소를 발굴·포상해 현장의 불안정한 상

차단기·밸브 이중안전장치 설치 협력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태를 제거하고 기본중시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등 중부발전의 안전의식이 한층 성숙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엔 작업현장의 고질적 안전사고의 원인인 빨리빨리 문화 근절을 위해 거북이를 중부발전 안전문화 마스크트로 선정해 작업절차 준수, 작업 사전검토강

화, 작업계획서 작성, 현장 근로자 위험작업중지권 확대, 공기단축 금지와 공사계획 사전검토제 등을 추진한다. 공정보다는 안전관리에 특화된 느리지만 안전한 'KOMIPO-Turtle Culture(중부발전 거북이 운동)' 2단계 안전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해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목표다.

중부발전은 협력기업에 대해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등의 현장 소통채널 운영과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협력기업 온라인 제안관리 시스템을 통해 73건의 제안을 접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중부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을 시행했다. 특히 온라인 마음건강검진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각종 안전사고 이후 원활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 협업진단을 통한 협력기업의 구조적, 관행적 문제점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도 지원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 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 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적자국채 발행은 투자, 성장 전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주장, 김종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당장 돈 쓰지만 GDP 늘려 세수 통해 채무상환 능력 키워
기재부 판단과 그 이상을 하겠다는 공론...당이 주도할 것

‘천명인심(天命人心)’. 지난 3일 찾은 국회 의원회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에는 한자성이 표구 액자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 국대사 시절 선물한 ‘구동존이(求同存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쓴 ‘군주인수(君舟民水)’도 눈에 띄었다. 이를 소개하는 그이전 애정이 담백 담겨있었다. 이중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이 가장 좋아한다는 ‘천명인심’은 지역구의 한학자의 필체로, 정치인이 역사적 사명을 고민하지만, 이는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란 뜻이다. 정치인이 고민해서 나오는 것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 에도 있으니 즉, 민심을 잘 들으라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행방을 고민하는 김종민 최고위원으로서 최근 역시 깊이 각인해 숙고하는 경구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또한 쟁점인 상황이다. 이를 법제화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되 손실보상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손실보상 비율 면에서 그는 “다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신중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정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지를 남기며 “두세 번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결국 비용”이라면서도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투자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에 투자하면 GDP가 2% 성장할 게 3% 성장할 수 있다. 1% 차이가 전체적인 GDP 규모를 늘려 국가 채무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더 많은 세수를 통해 채무 상환할 능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국회, 정부, 대통령이 고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기재부의 판단과 그 이상을 하겠다는 공론이 모여야 하고, 이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 의원은 열성 지지층이 건강한 당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의견에 “온건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본다. 강성 적극 지지층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다. 온건 지지층도, 또 지지하지 않는 이들의 비판도 국민의 의견이다. 이를 다 존중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되 손실보상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정부 재난 지원금에 대해 “두세 번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모아 전체 국민을 위해 갈 길이 뭘지 고민하는 게 정치다. 강성 지지층 의견이라고 해서 비토하거나 배척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수사,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도와 시점에 대한 이견 차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기소 분리 시점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1년, 늦어도 2년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 법제 정비, 인력 구성, 시설 구축 등 실무적인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졸속 아닌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장인 그는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게 당의 실력”이라며 “우리 정당들의 전문 역량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의) 국가 비전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많은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며 “내년 새로운 재집권 때는 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명동 밥집서 급식 봉사



SK에너지는 조경목(사진 오른쪽) 사장이 5일 명동 밥집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명동 밥집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이다.

조 사장은 SK에너지 구성원 및 명동 밥집 봉사자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과 명절 선물을 노숙인, 결식노인 등 5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도시락은 코로나19로 힘든 인근 식당 여러 곳에서 만들었다. 명절 선물은 친환경 소셜벤처 오투엠에서 만든 마스크를 전했다.

SK에너지 조경목 사장은 “소상공인들을 통해 준비된 따뜻한 도시락과 SK에너지의 응원과 행복까지 담겨 잘 전해지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행복한 세상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은 취약계층과 매출 급감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음식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 명동·화현동 중소 음식점들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이 도시락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에 공급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아마존 호미’를 아시나요

과기부 ‘한국판 뉴딜’ 홍보 ... 일주일 만에 57만 조회수 돌파
영상 출연 석노기 장인 “전통산업 새로운 성공사례 나왔으면”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농기구 호미가 한국판 뉴딜 홍보의 주인공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표적 전통 농기구인 호미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만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TV 광고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상으로 활로 모색과 시장 개척을 보여준 ‘아마존 호미’가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꿈을 주는 정책이라는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과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

다. 이번 광고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우리 주변의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쉽고 호감도 있게 전달하려는 취지로 제작됐다. 광고는 주요 TV 채널, 유튜브(대한민국 정부·과기정통부 채널), KTX 등을 통해 2월 말까지 송출될 예정으로, 영상 게시 일주일 만에 57만 조회 수를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상 속 주인공인 석노기(얼굴 사진) 장인은 “디지털을 활용해 호미가 원에 분야



국산 호미를 소재로 한 ‘한국판 뉴딜’ TV 광고.

고객만족도 1위를 하는 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서 자신과 같이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사람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고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델바이스’...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 별세

불후의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5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플러머는 이날 코네티컷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플러머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연기를 시작해 이후 할리우드 영화계와 브로드웨

이 무대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1965년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아내를 잃고 7남매를 홀로 키우던 퇴역 대령 트랩 역할을 맡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가 영화에서 부른 에델바이스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생전 10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으며 2012년 영화 ‘비기너스’로 82세 나이에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령 수상 기록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남극대륙 첫 탐사’ 윤석순 前의원

1985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극대륙을 탐사한 윤석순 전 국회의원 이 6일 오전 6시4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윤 전 의원은 부산고-부산대를 졸업한 뒤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20여년간 근무했고, 1981년 민주정의당 당장에 합류해 제11대 국회의원(전국구)을 지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로 있던 1985년 11월 스스로 탐사대를 꾸려 칠레 공군기를 타고 남극 킹조지섬을 향해 출항했다. 이후 한국은 1986년 11월 세계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했고, 1988년 2월에는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를 세웠다. 연합뉴스

알리 꺾었던 前 챔피언 스팅크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헤비급 챔피언인 복싱선수 리언 스팅크스가 5일(현지시간) 향년 6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스핑크스는 1978년 최고의 복싱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를 꺾고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며 명성을 날렸다. 당시 스팅크스는 프로로 데뷔한 지 13개월이 지나 고작 7번의 경기를 치른 신예였다. 그 누구도 스팅크스가 승리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15라운드 끝에 판정승하며 팬들에게 복싱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선사했다. 알리와 알리의 경기를 치르기 2년 전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라이트헤비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혜림 기자 rog@

인사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문희 △정책기획관 황성환
- ◆행정안전부 △실장급 임용 △국가기록원장 최재희 △국장급 승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관 박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데이터기획관 배일권
-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중무실 중무1담당관 강성태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이종률 △주재관 임용 대기 이영호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과 농업통상과장 양지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최봉순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김기연 △과장급 고용휴직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아태사무소) 김신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임용 △서거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
- ◆보건복지부 △과장급 △급여기준과장 조충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신재형 △기초연급과장 송명준 △보건산업진흥과장 조귀훈
-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금융분쟁대응TF담당 이영직 △한국금융연구원 과장급 김기환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가급) △상임위원 박계옥 △고위공무원 승진(가급) △기획조정실장 임운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승진(1급) △경영안전처장 임재형 △인재육성처장 최주환 △승진(2급) △빅데이터팀장 이정석 △디지털서비스팀장 김승관 △법무지원부장 박항섭 △푸드플랜부장 김영범 △공공급식부장 공영미 △통일교육원(교육파견) 오창준 △전보 △비서실장 전기찬 △디지털혁신담당 이원기 △기획조정실장 김형목 △수급관리처장 김경욱 △비축사업처장 이주표 △식량관리처장 강계원 △수출전략처장 양인규 △해외사업처장 안병희 △식품진흥처장 백대근 △회화사업센터장 곽동호 △급식지원처장 기노선 △e커머스사업처장 배민식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권형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은석 △대외협력부장 고혁성 △홍보실장 노윤희 △디지털기획팀장 민경후 △조직관리부장 황도연 △사회기차출발부장 윤정자 △경영지원부장 이운영 △시설안전부장 김병철 △ICT기반부장 박기관 △정보보안부장 김용광 △노무복지부장 석영지 △기금관리부장 박정화 △유통정보부장 정일권 △비축관리부장 임현주 △보관관리부장 한승희 △드류부장 남

- 택홍 △밀산업육성팀장 채중혁 △공산업육성팀장 권혁원 △수출정보분석부장 윤미정 △글로벌거점지원부장 송미정 △신시장개척부장 노태학 △마케팅지원부 박성국 △수출플랫폼TF팀장 김민호 △농임산수출부장 김경철 △수출기반부장 권현주 △수산수출부장 구자성 △식품외식지원부장 우수동 △식품수출부장 윤상영 △유통기획부장 기운도 △시장지원부장 김기현 △온라인유통활성화TF팀장 장호광 △교육지원부장 홍준수 △학교급식부장 유명근 △플랫폼사업부장 김서령 △온라인경매부장 허현행 △식품기업육성부장 전대영 △센터운영부장 김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장시현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서기원 △인천지역본부장 권오훈 △전북지역본부장 류정환 △제주지역본부장 한병희 △아세안지역본부장 박민철 △상하이지사장 성시찬 △청도오사사무소장 이선우 △쿠알라룸푸르지사장 장재형 △교육파견 △서울대학교 김창국 손용규 △국방대학교 홍성호
- ◆쌍용건설(승진) △부사장 △이경석 △상무 △이상엽 △유종식(신규 선임) △상무보 △제갈명 △송준호 △이계상

부음

- ▲유철홍 씨 별세, 지길순 씨 남편상, 유현희(이투데이 유통바이오부 부장)·현영·현옥(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원) 씨 부친상, 박영환(뉴시스 차장)·강철규(효성첨단소재 아미디사업단 영업팀 부장) 씨 장인상 = 6일,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7시, 043-644-4422
- ▲인창원(3·8 민주기념사업회 기념관 추진위

- 원장) 씨 별세, 인상민·현진·상준(대전CBS 기자) 씨 부친상, 조성권(미래여성병원 원무과장) 씨 장인상, 박보미·한수형 씨 시부상 = 7일,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일 오전 9시 30분, 042-280-8181
- ▲양창근 씨 별세, 양승부(16대 국회의원-대한민국헌정회 감사)·영진 씨 부친상 = 5일, 제주시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64-798-88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BNE건설링 고문
동국대 명예교수

‘공짜 점심’은 없다. 공식적인 권한(entitlements)을 부여하는 정책은 되물리기 어렵고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동요건, 제도 추진 및 정착 방법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정책 설계에 실패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끊임없는 재정 소요로 국가 재정은 머지않아 거덜날 것이다. 이번에는 재정위기다.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가올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정지출을 약속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판명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경제학에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론이란 게 있다. 정책 추진의 이유를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도 월가의 금융기법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더하여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무조건 보

증을 제공한 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또한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대신하고 퇴직 후 연금 보상을 최고 95%까지 해주는 퍼주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결과는 서민 파산의 양산으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의 파탄과 사건 당사자인 거대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자금의 지원,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스의 경우는 어떤가? 항만, 공항 등 국가의 주요 인프라 자산의 해외 매각 및 운영권의 외국 양도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였다.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으로서 구제금융 제공으로 거대 금융기관을 회생시킬 수 있었고 오히려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아직도 빛에 허덕이고 있고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독일과 같은 경제강국으로의 취업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강요된 내핍과 전문인력의 유출 사태는 단기적인 충격의 문제가 아니다. 빚내서 운영하는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목격해 왔다.

우리 또한 1997년 외환위기가 외자 유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거부를 거쳐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내 수많은 은행들의 줄도산과 통합합, 기존 은행들의 대출 회수로 인한 신용경색이 경제위기로 번져가는 과정을 겪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멸절된 중견 사업자들의 가정을 파탄 내고 이들을 길거리로 몰아내었던 기억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 인기영합적 퍼주기가 초래한 사태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와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상생연대 3법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적 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도록 유인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3040세대들의 좌절과 ‘영끌’로 구입한 주택가격의 버블이라는 잠재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의 환상에서 벗어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공식적인 권한(entitlements)을 부여하는 정책은 되물리기 어렵고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동요건, 제도 추진 및 정착 방법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정책 설계에 실패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끊임없는 재정 소요로 국가 재정은 머지않아 거덜날 것이다. 이번에는 재정위기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또한 새롭게 사업 추진을 거론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한 정책공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되새겨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대방로

김희정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 자문센터장



“행복하게 함께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속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끝이 났던 것 같다. 착한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해피엔딩을 이루면, 읽는 내내 가슴 조렸던 어린 마음이 그제야 평온해지곤 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행복하고, 권선징악과 정의로움이 살아있는 사회가 정당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한때 산업사회에서 ‘착하다’의 의미는 다소 평가절하 되어, 수단이나 용통성이 부족해 이익이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착한 소비’,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등 ‘착하다’는 표현은 공익적이거나 때로는 서민지향적인 의미를 담으며 공공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식으로 대표되고 있다.

‘착한 기업’이 대접받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ESG’가 급부상하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에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를 말한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위기가 초래되자 환경 문제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ESG 관점에서 경영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ESG는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다.

기업은 앞다투어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경영에 반영하고(ESG경영), 이를 전담 관리할 조직을 신설하여(ESG조직) 이른바 ‘착한 기업’임을 표방하고 있다. 연금급과 자산운용사들도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ESG 성과를 내는 ‘착한 기업’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ESG투

자)고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ESG 투자를 전체 기금자산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개인투자자들의 ESG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도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관련 투자를 묻는 고객이나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ESG 투자는 ‘착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양호한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므로 앞으로도 관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국내에선 초기 단계로 개인이 투자할 만한 ESG 관련 투자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다. 또한 다수의 일반인에게 ESG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거나 심지어 낯설기도 하여 투자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나 ETF 등을 통해 ESG 관점의 투자에 관

심을 가져보자. ESG는 이미 기업과 투자, 자본 흐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투자는 확대되고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법인의 ESG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제정하고, ESG의 개념과 최근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홍보용 동영상 제작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환경파괴라는 희생이 있었다면, 이제 △기업은 ‘착한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자는 ‘착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검증하며 △국가는 ‘착한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가 윈윈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정의로움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프 슈페터 명언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미국 경제학자. 자신의 저서 ‘경기순환론’에서 혁신(innov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그는 혁신 기업가에 의한 경제과정 내의 변화와 경제체계의 반응을 경제발전이라고 새로이 정의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83~1950.

☆ 고사성어 / 출처어묵(出處語默)

처세의 근본이 ‘나아가 벼슬하는 일, 물러나 집에 있는 일, 의견을 발표하는 일과 침묵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 여기서 ‘출처’는 행동을, ‘어묵’은 말의 중요성을 뜻한다. 공자(孔子)가 한 말. “군자의 도는 나아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한다[君子之道 或出或處或默]. 두 사람의 일치된 마음은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을 만하고 마음속에서 일치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출전 역경(易經) 계사상전(繫辭上典).

☆ 시사상식 / 아메바 경영

최고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각자 주특기를 살려가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기업 경영 형태를 말한다. 연체동물처럼 필요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유연성이 강점.

☆ 우리말 유래 / 이골이 나다

오랫동안 같은 작업을 하면 길이 들어서 버릇처럼 익숙해지는 것을 뜻한다. 모시 짜기는 아랫니와 윗니로 태모시를 물어서 쪼개서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래 작업하다 보면 이에 골이 파이고 깨진다는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집중 안 하면 꼭 이렇다

한 학생이 엄마와 은행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핑퐁’ 하는 소리가 들리자 벌떡 일어나서 집에서 하듯 소리를 질렀다. “누구세요!” 같이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던 엄마가 은행을 나가버렸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노우리 산업부/we1228@



성과급 논란의 이면

많은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성과급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니라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성과급은 전년과 같거나 더 적어졌다는 것이 불만의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임원들의 성과급 액수는 변함없는 상향 그래프를 그렸다는 점도 불을 댕겼다.

실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기업 구성원들은 “성과급을 더 달라”는 철부지식 때쓰기 보다는 성과급 규모가 산정된 기준과 과정을 상세히 밝혀 달라는 합리적 요구를 앞세웠다.

호실적 배경엔 업황 호조도 있겠지만, 임직원들의 헌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기업들의 업종인 반도체, 배터리, 통신 등은 핵심 인재 중요성이 다른 분야보다 큰 첨단사업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에선 최근 노사 대화를 거쳐 타협점을 찾았다. 기업으로서 성과급 기준이 회사의 투자 계획 등 중요 경영 정보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공개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불통이 초래할 시기 저하, 인력 유출 등이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사태가 꼬일수록 진부하게 느껴지는 정공법이 답이다. 이해 가능한 기준과 논리로 구성원을 설득해야 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빛투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때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의 소재는 '빚'이다.

"전 재산이 혈관 속을 흐르는 피뎌"이라고 고백하는 바사니오는 구혼을 위한 여행비용이 다급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룩에게 빌리려 하자 보증을 요구했고 친구인 해운업자 안토니오가 나섰다.

샤일룩은 기한을 어기면 1파운드의 생살을 도려내도 좋다는 서약을 요구했고 안토니오는 운항 중인 선박이 도착하면 돈이 납친다며 이를 거만하게 수용했다.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로 그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샤일룩은 서약 집행을 요구했다.

소설 속 재판관으로 나선 포사는 명판 결을 내린다. "계약대로 살형이 1파운드를 가지시오, 다만 그걸 잘라낼 때 피를 단 한 방울만 흘려도 당신 땅과 재물은 베니스 국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오." 샤일룩은 집행을 포기했다.

결국 권선징악 판타지로 끝났지만, 초반의 돈거래는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빚의 위험이 전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주식시장을 제 집처럼 누비는 동학개미를 보면 소설 속 안토니오를 연상케 한다.

코스피 지수가 3000에 안착할 정도로 활황세를 이어가며 '묻지마 빚투'가 만연해 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988조8000억 원이다. 연간 사상 최대인 100조 원 넘게 늘었다. '벼락거지(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 신세가 된 서민들과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빠진 2030세대들이 묻지마 투자에 나선 결과다.

'주식세끼(1일 3회 거래)', '오지기(하루 수익 5만원)', '주린이(주식하는 어린이)' 등의 용어도 더 이상 낯설지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않다.

취업난에 낙담한 청년들은 은행 통장보다 주식계좌를 먼저 뜬다. 군 내무반마다 스마트폰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일회일비하는 '병정개미'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20·30세대가 새로 만든 증권 계좌는 117만 개로 전년(25만 개)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 융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21조 원)로 늘었다.

직장생활의 풍경도 바뀌었다. '임포자'(임원을 포기한 사람)를 넘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도 생겨났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늦어도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목표인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젊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퍼졌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축'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면 한국의 파이어족은 주식투자자로 은퇴자금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의 모습과 믿음이 광기에 가까워 보여 걱정스럽다. 전망이 어두운 비디오편에 게임 업체 주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발 작전에 폭등·락한 '게임스탑 사태'에 국내 서학개미가 끼여든 상황이다.

이 시대 투자 철학이 '더 큰 바보 이론'(가격이 본질 가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 믿음·기대로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주식커뮤니티를 보면 대다수 '빚투족'은 "시간이 무기"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공식은 신념이 됐다.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 모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다는 '경험적'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착한 부채는 많지 않다. 빚은 무서운 짐이다. 저금리 시대엔 이자 부담이 적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이자 낼 돈을 벌기도 힘들다. '영끌'해서 집을 사거나 빚투로 주식에 몰빵하려고 끝이다 쓴 돈은 자칫 낭떠러지로 내몰 수 있다.

거품이 꺼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특히 빚으로 쌓아 올린 거품이 꺼질 때 충격은 상상 이상이란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투자자·채권자는 자금이 제대로 순환될 땐 좋은 친구지만 회수불능 위험에 처하면 저승사자로 돌변한다. 하락률이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처분하는 로스컷(loss cut)은 칼날 같고, 신용등급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부채약관(debt covenant)에 따른 일시상환 요구는 총알 같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는 최근 코스피지수 급등에 따른 '거품 논란'을 두고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따른 가격 조정으로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블'은 버블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 거품이 터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지난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버블: 부의 대전환'이 경고한 "버블에 올라타거나 버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대다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곱씹어 볼 때다. kmh@

시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재정위기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도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거둬들인 확장 재정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금살포 정책이 잇따르는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이다. 채무비율은 2019년 41.92%에서 작년 48.41%로 치솟았고, 올해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로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다.

2015년 이후 10년간 채무비율 상승폭은 IMF 분류 37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9번째로 크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호주 등이 우리보다 높고, 스페인·이탈리아·캐나다 등은 낮다. 기축통화국들이 비교 대상이고 보면, 사실상 우리 채무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고 채무도 악성(惡性)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우려 또한 커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현재 한국 신용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의 경우 AA-다. 피치는 한국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운영계획에서 D

1의 채무비율은 작년 43.9%에서 올해 47.3%까지 올라가고, 2024년 60%에 육박한다. 정치권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밀어붙인다.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한다. 피치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급전망과 영국·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췄다. 재정악화 및 적자 증가 때문이다.

한국 신용등급 하락도 곧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자본 유출의 방아쇠가 되고, 나랏빚을 더 불려야 하는 악순환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몇년 한국의 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재정위기의 늪에 빠졌던 남유럽 국가와 비슷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돈 퍼붓기 정책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수 감소로 재정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 우려다. 1990년 초 채무비율 40%대에 그쳤던 일본이 재정중독에 빠져 현재 220% 이상으로 폭증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의 위기를 맞기 전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트북을 열며

곽도흔
정치경제부 차장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예타는 해보자

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김해신공항 준치 등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필자 생각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변 장관의 생각이기보다는 국토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아직 김해신공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2일 가덕도 신공항 토론회를 뒤늦게 녹화한 영상으로 시정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김해신공항이었다.

경제학자인 우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가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국수봉을 깎고 바다를 매워야 하는데 현재 이곳은 생태 자연도 1~2등급, 국토 환경성 평가 1~2등급이라며 사실상 훼손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도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오봉산을 잘라야 하고 평강천을 매워야 한다고 반대했다. 가덕도와 사실상 마찬가지로인 상황이고, 바다 매립을 위한 비용은 추산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 비용이 최대 22조 원까지 추산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과 같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24시간 공항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 노동과 교통 문제 등으로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물류를 이야기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8년, 물류 중심의 수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실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다시 7~8년이 필요하다.

경제는 지금이 위기인데 공항 건설은 약 15년 뒤에야 현실적이고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하면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효과는 20% 정도다. 말 그대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서울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이 극심한 대립 상황에 있다. 이래저래 공항 하나 추진하겠다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셈이다.

부·울·경에 살지 않는 사람은 김해나 가덕도나 막연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현재 김해공항과 가덕도의 거리를 보니 27.4km였다. 차로 약 30분 거리다. 부산시청에서 거리는 김해공항이 17km로 19분, 가덕도는 36.8km로 42분 거리다. soqood@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이번 주엔 설 연휴가 끼어 있어 발표되는 경제 관련 지표가 그리 많지는 않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 운용 결과, 한국은행이 내놓는 1월 금융시장 및 고용동향,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1월 고용 관련 지표가 관심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9일(화) '2020년 총세입·총세출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의 한 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 없는 수준까지 벌어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총지출은 501조 1000억 원, 총수입은 437조 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3억 3000억 원 적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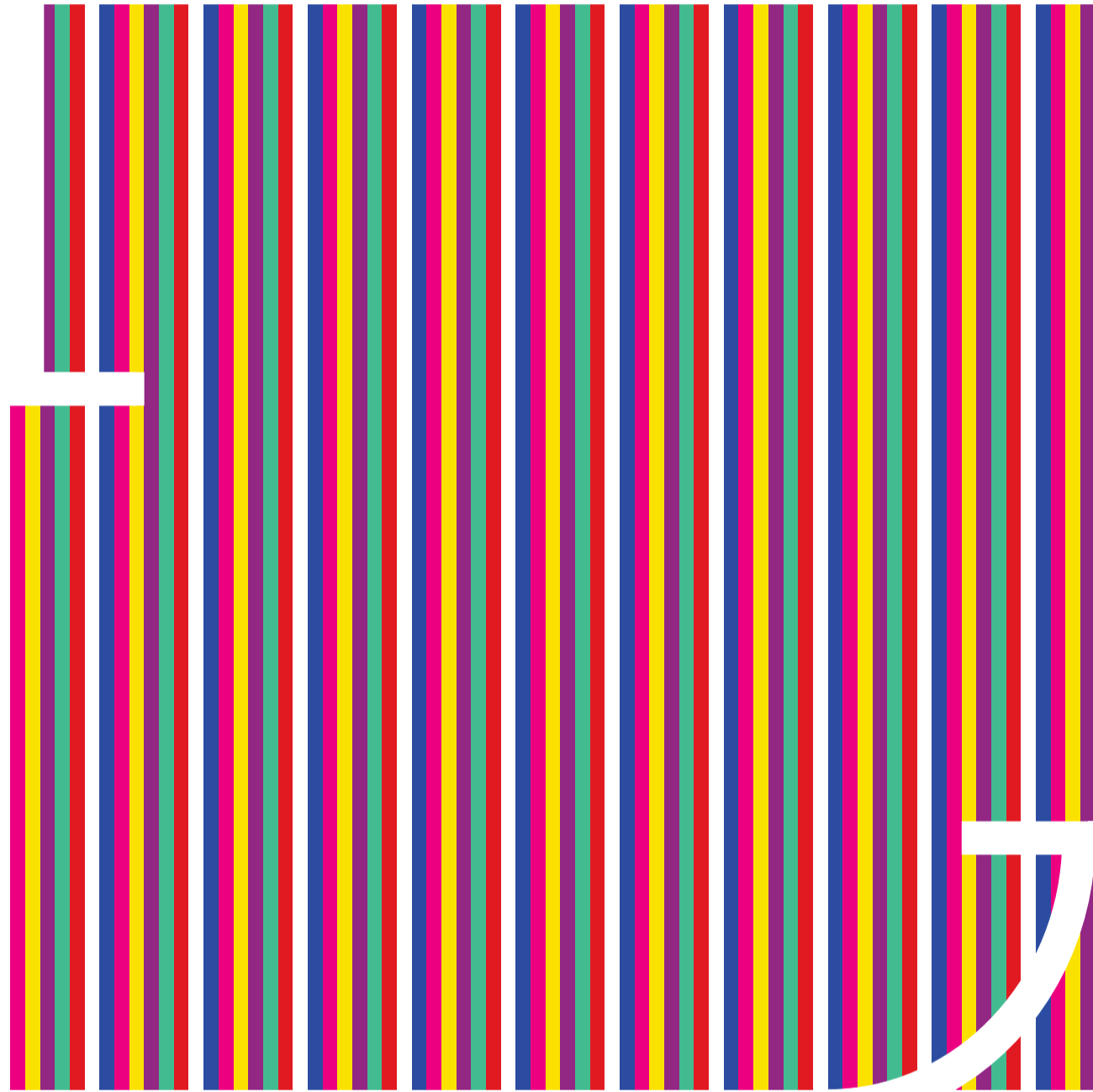
한은은 10일(수)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100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작년 12월만 보면, 가계대출은 한 달간 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대

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4000억 원으로 11월(7조 4000억 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폭(6조 3000억 원)은 11월(6조 2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월)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566억 원으로 7월 1조 1885억 원 최고치를 찍은 이후 9월 1조 1663억 원을 기록하고 3개월째 9000억 원대를 보이고 있다. 작년 1~12월 전체로는 11조 8507억 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지급액(8조 913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어 10일에는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확산은 다소 진정됐으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유지된 만큼 고용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자 수 증감이 가장 관심인데,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년 대비로 취업자 62만 8000명이 줄어 1999년 2월(-65만 8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정리·홍석동 여론조사부장 hong@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우리 고유의 색동에는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